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newstarealty.com  
Dian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 앤도버 한 고교 세월호 성금 모금 전달 한인 여고생 주축, 전교생 동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앤도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이 벌어졌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이국 땅 또래 친구들을 향한 우정의 발로로 짐작된다.

지난 28일부터 30일 오전 10시까지 이루어진 성금 모금은 한인 여고생 정다희양(11학년)이 주축이 되어 확산된 것으로, 전교생 대부분이 동참했다.

정 양은 노란 리본을 만들어 학교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달아주며 1달러 성금 기부를 호소했고, 3일 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727.38을 모아 30일 오후 보스톤코리아에 전달했다.

성금 모금은 학교 측의 협조도 이루어져, 정 양에게 방송을 통해 성금 모금의 취지를 알리도록 배려하는 한편, 모금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묵념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정 양은 “세월호 희생자들이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라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 고 말 ▶▶2면으로 계속



모금한 성금함을 통해 들고 있는 정다희양

## 하버드 한인학생 휠체어 타고 미주 횡단

세계 최초 장애인 위한 여행안내서 준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하버드 한인 장애인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미주 20개 도시를 횡단하면서 세계 최초로 장애인들을 위한 여행코스 및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반신 장애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하버드생 김건호(1학년) 군은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50여일 간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LA, 라스베이거스를 거쳐 뉴욕, 뉴 헤븐, 프로비던스, 보스톤에 이른다.

횡단은 버스를 이용해 움직이지만, 장애인 여행 코스는 김 군이 직접 휠체어로 움직여 주요 관광지, 호텔, 레스토랑, 대학 등 곳곳을 탐방하고 소개한다.

김 군과 한 팀인 브래드 류(Brad Riew, 하버드), 김유명(You-Myeong Kim, 하버드), 신시아 정(Cynthia Cheung, Uni-

versity of Bath) 3명의 친구들은 교대로 운전하면서 사진과 동영상 찍고 글을 써 바로바로 블로그와 페이스 북, 트위터 등 SNS에 올린다. 올린 글들은 나중 편집해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이미 레츠고(Let's Go)라는 여행안내 책자회사에서 출간을 도와 주기로 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섭외해 온 김 군은 “4년 전에 스키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며 “휠체어 접근성이 좋다는 미국이라고 하여도 많은 곳들이 아직까지 휠체어로 다니기 힘든 현실을 알게 돼 이 일을 결심했다” 고 말했다.

처음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 주변 친구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부모님도 반대했으나, 2주만에 트레블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2014년 할인항공전문

From **\$1116~**

보스톤 - 인천(왕복!) ONLY 1 Stop

4,9,10,11월 비수기 출발!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티켓가격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패키지 투어, 고국투어, 크루즈, 호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 문의 바랍니다.

**I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2p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avelkorea

**MORTGAGE MASTER**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Ezer Lee**  
NMLS #859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O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Equal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Drop off Store**

- 인기 힘든 Drop off store
- 좋은 로케이션, 고성적인 손님 / 일년 매출 \$300k 이상
- 저금 권의 주세요. (제이슨 전 617-642-5670)

**DRY CLEANERS**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5월 3일 오후 5시



# 세월호 희생자 위한 “한마음 추모 음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애도의 마음을 모으는 “한마음 추모음악회”가 오는 5월 3일 오후 5시 보스톤한인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이번 추모음악회는 지역 각대학 한인학생회대표들이 참석해 추모사를 할 예정이며 브루클라인 시청에서도 지하주차장을 열어 참석객들의 주차 문제를 돕고 나섰다.

화음보스톤첼버오케스트라 장수인 단장은 “세월호 참변에서 가슴아프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이없이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이번 음악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안에서 어이없이 숨져간 어린 생명들의 넋을 기리고자 하는 한인들은 이날 음악회에 참석해 추모성금 모금에 동참할 수 있다.

추모성금전액은 KACF(한미문화재단)을 통해 한국의 희생자 가족을 위한 기금으로 보내지게 된다.

이번 추모음악회는 KACF와 보스톤한인교회가 후원한다.

일시: 2014년 5월 3일(토) 오후 5 PM  
장소: 보스톤한인교회(32 Harvard St. Brookline)

티켓: 무료입장 (추모성금함)  
연락처: sooihnee@comcast.net  
978-821-9434  
hckim@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 1달러에 담은 미국인 친구들의 마음 “Please Come Home”

하며 “남은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먼 미국 땅이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모금을 시작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세월호 소식은 같은 학교의 미국인 친구들도 SNS를 통해 다 알고 있다”며 “특히 같은 연령대 친구들이 당한 사고라 더욱 관심을 갖고 마음 아파한다”고 전

했다. 세월호의 숨겨진 영혼들을 위해 자작시 ‘Please Come Home’을 지었다는 정 양은 글 쓰는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 이번 스칼라스틱 작문 전미대회에 주대표로 출전해 골드키를 수상했을 정도.

성금을 전달한 정 양은 “이제 뭔가 할 일을 좀 한 것 같다”고 말하며, SNS를 통해 학교친구들에게 모금 액수와 함께 보스톤코리아에 전달했음을 알렸다.



정 양을 도와 성금 모금에 동참한 친구들

## 보스톤코리아 세월호 희생자 성금모금 중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 보스톤코리아는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5월 1일자로 중단한다.

이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사조직이나 시민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금 모금 중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

이다.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사조직이나 시민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금 모금은 유가족 의사와 전혀 무관하다”면서 “생활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저희들에게 성금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일”이라고

성금 모금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안타까운 마음에 성금을 하셨다면 투명한 방식으로 한 라인으로 받고 모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보스톤코리아의 장명술 대표는 “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성금 모금보다는 다른 노력들을 통해 유가족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hckim@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롱 펌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과기협 수학경시대회

## 뉴잉글랜드 한인학생 전미 순위 밀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재미과학기술자협회가 한인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미 수학경시대회에서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학생들의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잉글랜드지부(이하 NE 과기협, 회장: 이재형)는 지난 4월 12일 MIT에서 개최된 과기협 수학경시대회의 전미 순위에 뉴잉글랜드 지역 참가자들이 못했다고 밝히며 안타까움을 표

했다. 발표에 의하면, 워싱턴 지역(Washington Metro), 시애틀 워싱턴(Seattle Washington), 실리콘 벨리(Silicon Valley), 뉴저지(New Jersey) 지역 등이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번 뉴잉글랜드 지역 행사를 총괄한 NE 과기협 조진행 부회장은 “앞으로 뉴잉글랜드 지역의 학부모 및 학생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과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했



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5월 1일부터 과기협 홈페이지 (<http://kseaa.org/>) 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hckim@bostonkroea.com](mailto:hckim@bostonkroea.com)



휠체어를 타고 미국 여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행 안내서를 준비하는 김건호 군(우)과 브래드 류.

“재활의 맨 마지막 단계가 여행”이라는 말처럼 먼저 홀로 서보고, 그것을 토대로 다른 장애우 및 신체 약자들의 재활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군의 휠체어 미주 횡단에 대한 자료는 <http://wheelproject2014.wordpress.com/>에, 비디오 자료는 <http://vimeo.com/91388395>에 나와 있다. [hckim@bostonkroea.com](mailto:hckim@bostonkro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김현천 HyunCheon Kim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오현숙 HyunSook Oh

**Graphic Designer**  
양성대 SoungDae Ya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레이디경향**  
617-775-8474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1면에 이어서

## “재활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여행”

타(Trevolta)라는 기금모금 웹사이트(Corwd-Funding Website)에 6천 불 가까운 후원금이 모이는 걸 보고 이제는 후원자가 돼 있다고

하지만, 50여일 간 20개 도시 탐방 여행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다방면으로 후원을 알아보고 있는 이들은 여러 교내 신문이나 잡지

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들의 취지를 알리고 후원자와 연결되길 기다리고 있다.

지난 4년 간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김 군은 사고 때 기억을 단편적으로 잃은 탓에 당시의 힘들었던 기억은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금 느리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뿐이지, 별달리 불편함을 느

끼지는 않는다”는 김 군은 “재활의 맨 마지막 단계가 여행”이라는 말처럼 먼저 홀로 서보고, 그것을 토대로 다른 장애우 및 신체 약자들의 재활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군의 휠체어 미주 횡단에 대한



## SAT Plus Summer Schedul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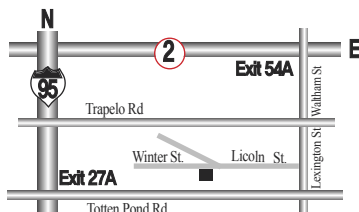
June 7/7 - 7/25 (3 Weeks)

Class	Time
SAT I Prep	8:00AM - 12:00PM (MORNING)
SAT I Prep	1:00PM - 5:00PM (AFTERNOON)

August 8/4 - 8/22 (3 Weeks)

Class	Time
SAT I Prep	8:00AM - 12:00PM (MORNING)
SAT I Prep	1:00PM - 5:00PM (AFTERNOON)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국제선의 기금 모금 만찬장



# 국제선 기금 모금 만찬 한인들 성원

150여명 참석 훈훈한 응원  
회원들 만든 노란리본 달아주고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국제결혼가정선교회(회장 미나)가 주최한 기금 모금 만찬에 1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훈훈한 성원을 보냈다. 지난 26일 하버 힐에 위치한 Diburo's Function Facilities - Ward Hill에서 개최한 기금 모금 만찬에는 지역 한인 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만찬을 나누고 국제선의 활동을 격려하며 힘을 실어줬다.  
국제선 회원들은 행사 시작 전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 후 참석객들에게 일일이 노란 리본을 달아주고 행사를 진행했다.

국제선 미나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해마다 아낌없이 국제선을 후원해 주는 여러분 덕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선우 한인회장을 비롯해 박선우 뉴햄프셔한인회장, 이경해 시민협회장, 한순용 뉴잉글랜드 한글학교협회회장, 김병국 보스톤한미예술협회장 등 지역단체장들과 지역인사 및 한인들이 참석했다.  
참석객들은 만찬을 나눈 후 경품 추첨과 여흥을 즐겼다.  
hckim@bostonkorea.com

# 보스톤 총영사관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운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사망, 실종된 희생자들을 위한 분향소가 4월 30일 수요일부터 뉴튼 소재 주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설치된다.  
분향소는 보스톤 총영사관 민원실에 마련되어 있으며 총영사관의 민원 업무시간 즉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이 분향소는 아직 미정인 정부합동영결식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주말운영은 장차 고려될 예정이다. 총영사관의 박종석 영사는 “현

재는 언제까지 분향소가 운영될지

모르고 주말에는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야 돼서 일단 먼저 평일 운영을 시작했다” 고 밝혔다. 박 영사는 “주말에 분향소 운영에 대한 한인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주말에도 설치할 수 있다” 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s.com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 운동 탄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E-4)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H.R. 1812)' 지지 서명운동이 온라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4 비자를 주어 미국에 취업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미국 기업 및 한국 기업들이 한국인 유학생 및 전문인들을 우대하여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돼 미주 한인사회가 확대되고 힘이 생긴다.

이 비자를 받을 경우 2년마다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이사는 는 1만 5,000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취업을 하면 그만큼 한인 동포 시장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은 다민족 사회로 인구 수가 많아야 대우를 받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호소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4월 28일 현재 1,337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서명 한인들의 해당 지역구 연방의원 의원에게 팩스로 발송했다고 알렸다.

시민참여센터에 의하면, 현재 텍사스 휴스턴이 355명으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서명한 곳이며, 이어 뉴욕 327명 뉴저지 225명 그리고 일리노이스 시카고의 KAvoice 가 130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이 법안에 지지를 한 의원들은 64명으로, 시민참여센터는 최소한 100명 이상 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며, 상원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공화당의 피터 로스캄(일리노이)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연간 1만5,000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동참한 공화당 의원들은 마크웨인 멀린(오클라호마 2선거구)·매트 살몬(애리조나 5선거구)·케이 그랜저(텍사스 12선거구)·존 러니안(뉴저지 3선거구)·더그 폴린스(조지아 9선거구) 하원의원 등이다.

민주당에선 애나 예슈(캘리포니아 18선거구)와 엘시 해이스팅스(플로리다 20선거구) 의원이 참여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 법안 상정을 위해서는 각 지역 한인회 등 대표 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Action.

kace.org를 방문하여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메일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해당 연방하원의원 사무실로 편지가 팩스로 발송된다고 알렸다.

hckim@bostonkorea.com



## 한국 방문 영주권자 '거소 신고제' 폐지 재외국민 주민등록 발급, 금융거래/건강보험 혜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국을 방문하는 영주권자들이 한국 입국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했던 거소신고내년 7월부터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국회는 29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영주권자 재외국민에게 한국 입국시 거소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해왔다. 이런 이유로 재외국민들은 행정적인 불편을 겪어왔다.

거소신고제가 폐지되는 대신 영주권자 재외국민들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된다. 주민등록을 할 경우 금융거래와 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가 인정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은 한국 언론을 통해 "국의 영주권자들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드림으로써 행정적 불편 해소와 함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켰다."며"금융거래와 건강보험 적용도 역시 동등하게 권리를 인정해 재외국민 편익을 증대시키는 물론, 이들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모국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hckim@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미용치과 (Veneers/Bleaching)
- 아말감 대신 치아색으로 [Composite Fillings]
- 응급환자 당일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보험 지정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 고 박석만 북부보스톤한인 연합감리교회 장로 별세



지난 30일 북부보스톤교회에서 치러진 장례예배, 교인들을 비롯한 지역 한인 500여명이 조문을 다녀갔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인사회를 위해 조용히 후원을 해온 고 박석만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장로(85세)가 지난 26일 별세했다.

지난해 뉴잉글랜드 한인회로부터 '올해의 한인상'을 수상했던 고 박석만

장로는 수개월 전만해도 외관상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나, 최근 뇌졸중으로 쓰러져 베이스이스라엘 메디컬 센터에 입원해 있던 중 영면했다.

고 박석만 장로의 웨이크는 29일 화요일 오후 6시~9시, 고별예배는 같은 날 오후 8시 Cataudella Funeral

Home(126 Pleasant Valley St. Methuen, MA) 에서 진행됐다.

장례 예배는 4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북부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김용환목사의 집례로 거행됐다.

장례예배에는 교인들을 비롯해 각 계각층의 교민들과 지역 교역자들이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하관예배는 West Parish Cemetery 에서 거행되었다.

고 박석만 장로는 931년 1월 24일, 경남 진해시에서 태어나 공군 문관을 지내고 1975년 도미해 보스톤 북쪽 Lawrence 에서 Park' s Autobody 를 운영했다.

1977년 북부보스톤교회 창립에 참여하여 1990년에 장로로 취임하였고 2000년에 원로장로로 추대되었으며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부회장을 역임하였다.

북부보스톤교회와 북부보스톤 한국 학교에서 공로패를, 안디옥연합감리교회에서 감사패를, 연합감리교회 뉴잉글랜드 연회가 수여하는 덴만 전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hckim@bostonkorea.com

INTERVIEW

## 노년기의 적 뇌졸중, 어떻게 피할 수 있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적지 않은 보스톤 지역 노인들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최근 별세한 박석만 북부보스톤장로교회 장로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불과 일주일 새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중 사망했다.

민유선 전 노인회장과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는 몇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나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은 결과 심각한 상황을 맞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한인들은 이민생활과 뇌졸중이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아직 뚜렷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은 없다.

이에 MGH에서 뇌졸중을 연구하고 있는 김현주 박사에게 뇌졸중의 원인과 예방법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갑자기 뇌의 혈관(middle cerebral artery : MCA)이 막힘으로 인해 뇌에 혈액공급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그 부위가 정상기능을 할수 없는 것을 말한다.

### 발병하는 연령대는 어떤가?

노령인구로 갈수록 발병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사망율이 높다. 설령 생존하더라도 신체적 마비로 인해 행동 및 언어장애를 나타내며 후유증이 심각하다.

발생빈도는 인구 100명당 매년 남자 3.94명, 여자는 2.52 명으로 높다. 우리나라가 발병률 세계1위를 나타내며 3대 사망질병 중의 하나이다.

### 발병 원인은 뭔가?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며 주로 뇌혈전증, 뇌색전증과 뇌출혈 등이 주요원인이다. 혈전이 이미 동맥경화증으로 손상을 입은 혈관에서 생겨 뇌로 가는 혈관이나 뇌속의 혈관을 막아서 생길

다. 고혈압은 뇌졸중 발병을 증가시키며 심장질환도 심장내 혈전을 증가시킬수 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육류의 섭취, 흡연, 알코올,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등이 있다.

### 증상은 어떤가?

뇌의 어느부분에 뇌졸중이 일어난 것인가에 따라 증상은 다양하다. 주로 신체 한 쪽의 마비나 허약, 몸 한쪽에 감각저하, 운동이 서툴고 섬세한 운동이 안되며, 눈이 어두침침하고 시력 장애가 온다. 말이 어눌해지고 구도와 신체의 불균형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 뇌졸중의 위험요소는?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콜레스테롤 증가, 과도한 흡연 및 음주, 비만, 운동부족, 심장질환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으면 뇌졸중위험이 높다. 일과성 뇌허혈증은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이 생겼다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질환이나 뇌경색을 일으킬수 있어 예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 예방법은 어떤것인가?

고혈압(수축기 혈압 140이상 이완기 혈압 90 이상) 환자의 경우 운동,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가 있다. 당뇨가 있는 경우는 내분비 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운동, 식사조절과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하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l 이상이면 약물치방 및 식이요법, 운동, 비만억제가 필요하다.

흡연자의 경우 뇌졸중 발생 가능성은 비흡연자의 1.5 배이고 지주막하 출혈에서는 흡연자의 위험이 5~10배로 높다. 흡연을 중지하면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감소한다.

또한 알코올의 과량 섭취는 뇌출혈이 생길 위험을 높이므로 음주는 줄여야 하며 비만 억제제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 운동도 중요하지 않은가?

운동은 뇌졸중과 심장질환을 예방한다. 가벼운 운동으로 규칙적으로 1시간씩 걷기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운동은 뇌의 해마 부분 (hippocampus region)에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며 뇌졸중 환자들에게 신체 마비의 기능회복을 도와준다.

### 어떤 식단이 좋은가?

육류위주의 식단보다는 신선한 과일과 푸른야채, 등푸른 생선 등의 섭취를 늘리며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줄여야 한다.

짜고 매운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요리하며, 항산화성 (anti-oxidant) 이 높은 식품인 블루베리, 브로콜리, 로즈메리, 녹차, 시금치, 당근, 버섯 등을 섭취하면 좋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뇌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식품으로서는 녹차, 천마, 은행잎 추출물등이 있으며 다수의 허브 (herb)도 포함된다.

### 뇌졸중 치료의 방법은?

많은 임상실험과 수많은 연구에도 아직 뇌졸중을 막을 치료약이 거의 없다. 뇌졸중은 복합적 질병으로 미국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승인된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를 환자치료에 사용하나 발병후 3시간 안에 사용해야 하고 약0.5% 환자밖에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자 발생시는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hckim@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NE한인회 보스톤한인교회서 회원가입 촉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한인회 한선우 회장은 지난 27일 한문수 수석 부회장과 장수인 부회장을 대동하고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 교회(담임목사 이영길)를 방문하여 교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한 회장은 보스톤한인교회의 교인

들 앞에서 작년 '정회원 1,000명 시대' 달성에 큰 힘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 회장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보며 한인회를 이끌어 감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한인 사회의 무관심이었다며 참여와 실천을 부탁했다.

이어 이영길 담임 목사와 한인사회의 발전적인 방향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이영길 담임 목사는 "지난 1년간 한인회의 노고에 힘입어 한인사회가 한단계 발전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지속적인 한인회에 관한 지원과 협조 그리고 관심을 약속하였다. 한회장은 예배를 마친 후 2014년도 한인회 임의 원서와 임의비를 받았다.

한인회는 지역사회 종교단체들과 협조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기를 희망한다며 어느 교회 혹은 어느 단체든지 한인회와의 만남을 원하면 뉴잉글랜드 한인회 (haninhoebo@gmail.com) 혹은 한문수 수석 부회장 (moon.econ@gmail.com) 에게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hckim@bostonkorea.com



한인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나선 한선우 회장



## 한 주에 한 개씩 잘못된 말 고치기 #12

이철영

### 애시당초 (X)

-> 맨 처음(O), 애초(O), 당초(O), 애당초(O)

'당초(當初)'라는 말은 '일이 생기기 시작한 처음'이란 뜻의 낱말입니다.

'애초'라는 말은 '맨 처음'을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이 두 말이 강조의 의미로 합쳐져 '애당초'라는 말이 생겨났

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어떤 뜻으로 '시'자가 더해졌는지 몰라도 그 글자가 더해져 '애시당초'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말은 표준 말도 아니고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 무료 건강검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새생활센터(대표: 송연호)는 오는 17일 토요일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검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내과 진료와 치과검진 및 건강 상담이 이루어진다.

내과는 처방전이 무료로 발행되며 치과는 검사 및 예방상담을 한다. 환자들은 도착하는 순서대로 진찰을 받을 수 있다.

당뇨병 검사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자 하면 아침식사를 거르고 가야 정확한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정확한 건강 상담을 위해 BMI(Body Mass Index)나 체내에 체지방검사가 시행된다.

MA 지역에 거주민들이나 방문객 모두 검진 받을 수 있다.궁금한 사항은 송연호(전화: 317-374-4786) 대표에게 문의하면 된다.

일시: 5월 17일 오후 2시 ~ 4시  
장소: 가족 물리치료 병원/GB Family Physical Therapy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전화: 781-365-1867)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 한미노인회 5월 사랑방 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미노인회(회장 유영심)가 오는 5월 7일 오전 11시부터 앤도버에 위치한 국제선교회에서 사랑방 모임을 갖는다.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오전 10시 30분까지 성요한교회나 북부보스톤교회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시: 5월 7일 오전 11시

장소: 국제선교회교회, 57 Perter St, N Andover 01845



###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 장우석 변호사

개인상해-교통사고,미끌어짐, 낙상사고, 동물 물림  
채무(개인,세금)-신용카드, IRS, 사업 거래처 조정, 합의  
파산법, 이민법, 추방소송 디펜스, 비즈니스 회계,세무,중개,매매  
민사소송, 형사소송 디펜스

상담문의: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 One Burlington Business Center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 한미선

###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t.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http://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해외금융계좌 자동보고 7월 가동

## 금융위, FATCA 이행규정 제정 추진 예금기관, 증권사, 펀드, 보험사 해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국 금융계좌에 잔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해 100만 달러 이하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IRS에 자동 보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사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이행을 위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16일 FATCA와 관련한 정부 간 협정을 맺으면서 양국 국세청이 2015년 9월부터 매년 9월

양국 금융회사 계좌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한국 금융사들은 오는 6월 말 기준 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계좌가 있을 경우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내년 6월 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25만 달러 초과 단체계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규정 제정 추진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FATCA와 관련한 정부 간 협정을 타결하면서 양국 국세청이 내년 9

월부터 계좌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제정한 법으로 미국 이외의 금융사는 오는 6월 말까지 미국 국세청과 협약을 맺고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인 실소유주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 요구 등을 해야 한다.

적용대상 금융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자산이 1억



7500만달러(약 1800억원) 이하이고 해외에서 계좌 유지 작업을 하지 않은 은행·협동조합 등 소규모 금융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계좌는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 달러 초과 시) △연금계약 등이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 등은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이행규정 제정안을 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hckim@bostonkorea.com

## TaLK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TaLK) 프로그램이 14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두 기수를 선발해온 TaLK 프로그램은 영어봉사 장학생들이 한국의 농·산·어촌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배치 지역은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이다.

주보스톤 총영사관은 오는 5월 30일

까지 제14기 TaLK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알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TaLK 프로그램은 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동포 및 외국인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재외동포는 대학 1, 2학년 재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서류심사 후 주보스톤 총영사관의 면접을 거쳐 한국정부에 추천되며,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면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한국에 입국하여 1년간 활동하게 된다.

hckim@bostonkorea.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문제 산적 아동 가족부 장관 전격 교체

패트릭 임시 장관에 에린 드브니 전 RMV 매니저 임명  
상하원 의장과 법무장관 사임요구, 올라 로치 전장관 사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들어 주 아동가족부의 관리 하에 있던 아이들 3명이 사망하면서 비난의 표적이 되어왔던 아동가족부의 수장이 바뀌었다. 드브니 패트릭 주지사는 30일 새 장관에 에린 드브니를 임명했다.

이에 앞서 29일 올라 로치 매사추세츠 주 아동가족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아동가족부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들리오 하원의장, 머레이 상원의장 그리고 코클리 법무장관 등으로 부터 사퇴요구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아동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아동가족부 감찰하에 있던 피치버그의 프리스쿨 소년의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소년은 2013년 4월 들어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4월 18일 시체로 발견되었을 때까지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동가족부는 또한 4월 26일 지난 4월 3일 그래프톤 경찰서에서 보낸 팩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시인했다. 경찰은 팩스를 통해 1개월 된 신생아가 위험에 놓일 위치에 있다고 경고했지만 팩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4월 5일 사망했다. 팩스는 4월 9일에서야 발견됐다. 26일 아동가족부의 방문 스케줄을 지키지 않은 피치버그 가정의 신생아도 사망했다.

드브니 패트릭 주지사는 그동안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동가족부 전문의 출신이었던 올라 로치 장관에 대한 신임을 놓지 않았으나 결국 중첩된 아



여러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매사추세츠 아동가족부 구원투수로 나선 드브니 장관

동가족부의 실수와 의회 및 법무부의 사임요구에 결국 로치 장관의 경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임 하루만에 바로 임시 장관 에린 드브니를 임명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드브니 패트릭은 “이런 상황에서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인사이드”이라며 경질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드러냈다. 로치는 지난 4월에 임시로 임명돼, 10월에 정식 장관으로 임명됐다.

에린 드브니 신임 장관은 앞으로 남은 8개월의 드브니 패트릭 임기동안 문제의 아동가족부를 떠맡게 됐다. 변호사 출신의 드브니 장관은 차량등록국(RMV) 매니저로 근무시절 등록 전산화를 추진했던 공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드브니 장관은 아동가족부에서 전혀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약점

으로 꼽히고 있다. 에린 드브니 장관은 훌리 크로스 사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해왔었다.

아동가족부는 전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또한 가족부 산하 소셜워커들이 관찰하에 있는 3만 6천여명 아동들의 월 방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업무 과적상태에 놓여 있기도 하다. 더구나 지난해 4월 피치버그 소년의 사망 이후 빚발치는 비난으로 인해 사기와 자신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개월짜리 토막난 임기를 이어받은 에린 드브니 장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관의 월급은 연 \$138,000이다.

hsb@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 경제 성장 미 전체 성장보다 훨씬 빨라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재정 서비스 등에 힘입어  
전체적인 경제전망 좋지만 장기실업 문제는 미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1/4분기 경제가 거의 정체된 미 전체 경기와는 달리 안정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립대와 연방준비은행 보스톤지점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 경제는 정초부터 3월까지 2.6퍼센트 성장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 경제는 0.1퍼센트 성장에 그쳤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전체 경기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 겨울동안 흑화와 폭설로 인해 많은 사업체들이 영업을 못하고 건설업은 지연됐으며, 주택 판매도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매사추세츠는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그리고 재정서비스 산업이 여전히 떠받치는 관계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매사추세츠 실업률은 3개월 연속 떨어져 지난해 12월 7.1%이던 것이 6.3%까지 내려갔다. 미국 평균 실업률은 6.7%이다.

임금과 연봉의 향상과 함께 매사추세츠의 취업사정이 좋아지면서 소비가 늘면서 주 경제가 활기를 띠는 것이라고 앨런 클레이튼 매튜 노스이스턴 대 경제학과 교수는 밝혔다. “경제 성장이 드디어 보트를 띄우기 시작했다. 이는

여느 때보다 강력한 경기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매사추세츠 주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추정액에 기초로 볼 때 개인소득은 연 15%가 늘고 있으며 주 세일즈텍스와 자동차 세금으로 파악되는 소비는 1/4분기 동안 6.1%가 늘었다. 이는 지난해 주 식시장의 급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평균 보너스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클레이튼 매튜 교수는 밝혔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분배는 고르지 않다. 장기 실업자는 주와 미 전체로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매사추세츠 주의 장기 실업률 감소세는 미 전체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내 4백30만명이 장기 실업자이며 매사추세츠 주는 8만8천 명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 이 같은 매사추세츠 수치는 10년전에 비해 두배 이상에 달한다.

노동부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만 실업률에 포함시키며 포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들까지 고려할 경우 미 실업률은 지난해 말 12%에서 오히려 증가한 12.7%에 달한다.

hsb@bostonkorea.com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전직 공무원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Sales Associate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MIT 재학 대학생들 \$100 상당 비트코인 받는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MIT에 재학 중인 약 4,500명의 모든 학부생들이 조만간 1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예정이다. 비트코인은 온라인 상에서 통용되는 가상 화폐로, MIT에 재학 중인 두 명의 학생이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9일 발표하였다.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생각해내고 실행에 옮긴 학생들은 제레미 루빈(MIT 컴퓨터 공학과 2학년)과 댄 엘리처(MIT 경영대학원 1학년, MIT 비트코인 클럽 회장)다. 이들은 MIT 대학생들에게 비트코인을 나눠주기 위해 펀드레이징을 통해 이미 50만 달러를 확보한 상태다.

이 학생들은 "MIT 캠퍼스에서 디지털 화폐를 통한 친환경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원하며 "교수와 학자들은 학생들이 학업과 경제 생활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비트코인 프로젝트의 취지를 밝혔다.

루빈은 학생들에게 비트코인을 주는 것이 마치 "인터넷 초창기에 사람들에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빈과 엘리처는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이미 50만 달러 이상을 지원 받기로 약속 받았다고



비트코인은 사이월드의 도토리과 같이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다

밝혔다. 대부분의 금액은 MIT 졸업생들이 기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구입한 1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은 올해 가을에 대학생들에게 제공된다.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남은 금액은 비트코인과 관련한 인프라 건설과 각종 활동에 쓰이게 된다.

또한 루빈과 엘리처는 비트코인을 나눠주기 전에 학생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엑스포 형식의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엘리처는 성명서에서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은 MIT 학생들이 시대를 앞서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며 "우리는 IT분야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도전해보길

원한다. 비트코인을 흥미롭게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jsi@bostonkorea.com](mailto:jsi@bostonkorea.com)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다.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2009년 나가모토 사토시라는 정체 불명의 개발자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9년은 Fed가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완화가 시작된 해로, 달러화 가치 하락 우려가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대안 화폐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 MA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 3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오픈 클라우드 프로젝트' 라는 이름의 대규모 서비스를 위해 주 정부와 학계, IT 업계가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드별 패트릭 주지사는 지난 주에 열렸던 빅 데이터 이벤트에서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2012년 8월에 패트릭 주지사가 서명한 경제개발 법안에 따라 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대학들과 IT 회사들이 1,600만 달러를 투자해 총 1,9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성사되었다.

패트릭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오픈 클라우드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빅 데이터를 연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가상의 연구실이 될 것"이라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커다란 저장탑 역할을 하는 실험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오픈 클라우드 프로젝트에는 시스코, 델, 인텔 등의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며, 기업들은 각종 시설과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보스톤 대학



(Boston University)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하버드, MIT, 노스이스턴 대학 등이 함께 참여한다.

보스톤 대학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매사추세츠 오픈 클라우드는 "공공 클라우드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며 "개방형, 맞춤형 디자인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한다. 오픈 클라우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서로가 아이디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2014 매사추세츠 빅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16억 달러 규모였던 빅 데이터 시장은 2017년에 48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 데이터 관련 프로그램은 헬스케어, 생명 공학, 금융 서비스를 비롯한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매사추세츠 주에서 향후 1년 동안 빅 데이터와 관련된 일자리는 3천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jsi@bostonkorea.com](mailto:jsi@bostonkorea.com)



# 가정愛 달

## 사랑이벤트

행사기간: 5월 18일 까지

정관장

**Event 1**



홍천웅    톤골드    톤마일드    화애락본

**Event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FREE GIFT**

**10% OFF** 성인 통제품 및 자녀제품

**사랑을 전할때 선물 하세요.**

➤ 매장으로 전화 주시면 타주 어디든지 포장 후 배송해드립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781-238-0303**

# 매사추세츠 유색인종 교사 턱없이 부족

유색인종 학생은 증가하는데 교사 92%가 백인, 교사 직업이 희망업종 아니기 때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매사추세츠주 교사들 사이에 인종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 전체에 걸쳐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스톤글로벌브는 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런 현상은 지역 대학교의 교육자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유색인종 학생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주 전체의 채용된 학교 직원 중 92% 이상이 백인이다. 다양한 배경의 교육진을 구성하기 위한 주된 파이프라인은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지만, 새 세대 교사를 교육하는 공·사립 프로그램에 등록된 전체 22,000명의 학생들 중 유색인종 학생은 13%를 차지할 뿐이다.

반면 학생 인종분포도의 변화는 주가 유색인종 교사를 고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년간 21%를 차지하던 매사추세츠주 아프리카-아메리칸, 히스패닉, 아시안, 원주민 계열의 학생 분포도가 올 해는 35%로 상승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매사추세츠 주 초·중등교육부는 웹사이트에 교사교육 프로그램 모집을 인종별로 분류해 게재했다. 또한 각 학군별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유색인종 학생에게 교육 쪽 진로를 고려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색 인종의 교사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주의 초·중등교육부 장관 미첼 체스터는 교직에 대한 홍보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은 희망업종이 아니며 선생님이 된다는 것에



매사추세츠주 내 유색인종 학생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유색인종 교사 비율이 낮은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고 체스터 장관은 지적했다. "다양한 취업 기회를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은 가장 마지막 순위에 온다.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선생님을 높이 평가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주 지역 행정부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유색인종 학생 수가 낮은 것이 다양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오랜 시간 탓해 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립대학교 시스템이다. 교사지망생의 30% 이상이 주립대학교에서 배출되는데 거의 모든 주립대 (브리지워터스테이트, 세일럼스테이트와 프래밍햄스테이트 포함) 캠퍼스에서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유색인종 학생의 수는 8%에 못 미친다.

사립대학은 대체로 근소한 차이나 마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한다. 예를 들어, 보스톤칼리지, 보스톤대학교, 레슬리대학교에서 교사양성프로그램에 등록한 유색인종 학생 수는 11~20%다.

대학교 임원들은 소수인종 학생 등록수가 기대하는 수치보다는 낮다는 것을 인정하며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우스터 주립대학은, 교육전공인 학생들과 다른 전공의 학생들에게 교육진로를 고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일하는 대가로 한 학기 1,000불을 지급한다.

hs0h@bostonkorea.com

# 럭셔리 아파트 붐, 보스톤 렌트비 하락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백베이와 사우스엔드의 렌트비가 지난 1/4분기에 대도시권역에서는 가장 큰 폭인 9 퍼센트나 하락했다. 최근 다운타운에 럭셔리 고층 아파트 붐이 경쟁을 유발시켰고 이것이 가격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코스타 그룹이 밝혔다.

보스톤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최근 보스톤 다운타운 크로싱에 위치한 컨싱턴 아파트가 렌트를 시작했다. 백베이에서는 아발론 엑스터, 노스 스테이션에 위치한 더 빅터 그리고 시포트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315 언 에이엔 워터 사이트 플레이스도 렌트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고급아파트 렌트 1000여 채가 시장에 나오면서 고객들은 선택의 범위가 아주 넓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고급아파트들은 리스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1달 무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며 렌트 고객들을 모으고 있다.

코스타 그룹의 부동산 경제학자 마크 킷키 씨는 "백베이와 사우스 엔드의 고급 고층아파트(luxury towers)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범위가 넓어졌고 수요는 그만큼 감소했다" 고 지적했다.

2013년 1/4분기 백베이와 사우스엔드 평균 아파트 렌트가격은 월 \$3,683에서 2014년 1/4분기에는 \$3,341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러

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백베이와 사우스 엔드의 렌트가격은 보스톤 시내 다른 어느 곳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타운과 차이나타운의 렌트비는 역시 가격이 하락했지만 보스톤내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평균렌트비는 지난해 1/4분기 \$3236에서 5퍼센트 하락한 \$3073이었다.

시포트 디스트릭트도 \$3,065로 지난해 1사분기의 \$3,131 보다 2.1% 하락했다. 올스톤 브라이튼 지역의 렌트비는 그나마 가장 저렴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4분기의 \$1,889에서 1.6% 오른 \$1,919이었다.

코스타의 아론 잭카 미국시장 매니저는 "올스톤-브라이튼 지역은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주로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보스톤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곳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인 자리에 검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Acton 콘도**  
\$249,000, 2beds, 1.5baths,  
1,370 sq ft(학군 좋음)



**Natick 콘도**  
\$469,000, 2beds, 2baths,  
1,323 sq ft(몰과 private 통로)



**Lexington 단독주택**  
\$1,469,000, 5beds, 4.5baths,  
7,405 sq ft(2014 새집)



**luxury harbor tower 콘도**  
\$519,000, 1bed, 1bath,  
753 sq ft(실내 수영장)



**Wesford 단독주택**  
\$650,000, 4beds, 3baths,  
3,986 sq ft(아외 수영장 딸린 집)



**Cambridge Luxury Apartment**  
한달 또는 두달 무료있음

# 5월 뉴잉글랜드 봄 축제를 만나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겨울 탓에 이번 주 찾아온 5월이 더욱 반갑다. 수선화와 철쭉, 라일락이 뿜어내는 봄향기에 취해보자. 해마다 보스톤에서 열리는 새끼오리 퍼레이드에도 참여하고,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리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골동품 박람회도 흥미로울 듯. 봄바람 불어오는 항구에서 랍스터를 즐기는 것도 뉴잉글랜드의 5월을 만끽하는 이벤트가 아닐까?

## ▶케이프 코드 해양의 날(Maritime Days)

5/1~5/31, 케이프 코드, MA.  
1달간 열리는 이 이벤트에는 카약타기, 등대&걷기관광, 해상 미술 전시, 케이프코드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리는 18회 케이프코드 해양 역사 심포지엄 등 다양한 해양 테마 활동들이 포함된다.  
<http://www.capecodmaritime-days.com/>



## ▶물과 불(WaterFire)

5월부터 10월 중 선택된 날짜(보통 5월에 발표), 프로비던스, RI.  
프로비던스 중심지를 통과하는 3개의 물길을 모닥불의 설치를 통해 예술로 승화시키는 이벤트. 100개의 깜박이는 모닥불빛 속에서 Waterplace 공원을 산책하고 세계 각지에서 온 음악과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을 산책하고 세계 각지에서 온 음악과 공연을 즐길 수 있다.

<http://waterfire.org/>

## ▶키니 철쭉 정원(Kinny Azalea Garden)

5/1~5/31, 킹스턴, RI.  
6 에이커 땅에 500종 이상의 철쭉과 진달래가 장관을 이룬다.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절정. 공원에 있는 대부분 식물은 구매 가능하다.(문의 401-783-2396)



[http://www.ebac.us/garden\\_club/kinney.htm](http://www.ebac.us/garden_club/kinney.htm)

## ▶새끼오리의 날(Duckling Day)

5/11, 보스톤커먼, 보스톤, MA.  
마더스테이에 사랑받는 이 이벤트는 보스톤 퍼블릭가든에 있는 호수를 배경으로 하는 고전적 동화 "Make Way for Ducklings"을 기념한다.  
매년,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의 옷을 입고 페이스 페인팅과 음악 만들기, 광대와 다양한 행사를 즐기기에 커먼에 모인다. 이후 하버드밴드 뒤에 있는 비컨힐부터 퍼블릭가든까지 행진을 한다. 행진의 끝에서 보스톤의 고관들은 자신의 가족을 만나고,



Wheelock Family Theater의 배우들은 로버트 맥클로스키가 지은 이 책을 읽어준다. 한 가족 당 35달러의 기부금을 내야한다.(현장에서는 40불)  
<http://friendsofthepublicgarden.org/events-activities/>

## ▶브림필드 골동품과 벵룩시장 쇼(Brimfield Antique And Flea Market Show)

5/14~5/18, 브림필드, MA.  
이 행사는 4,500명의 판매자와 130,000명이 넘는 사람이 방문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야외 골동품쇼다. 1년에 3번(5,7,9월) 열린다. 판매자들은 크고 편한 텐트 안에서 그들의 물품을 보여주는데 서로 인접해 있어 걸어서 구경하기에 좋다.  
<http://www.brimfieldexchange.com>



## ▶아놀드 수목원의 라일락 일요일(Lilac Sunday at the Arnold Arboretum)

5/13~5/18, 보스톤, MA.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수목원이고 세계에서 식물학을 이끄는 시설 중 하나인 하버드대학교의 아놀드 수목원. 수목원 내 수천종의 개화식물 중 단 하나, 라일락이 매년 기념행사를 갖는 것으로 선택됐다. 라일락과 댄스 공연, 특별한 날에만 허가되는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주차공간이 제한적이라 대중교통 이용을 권한다.  
<http://arboretum.harvard.edu/news-events/lilac-sunday/>

## ▶랍스터 데이(Annual Lobster Days)

5/23~5/26 (메모리얼데이 주말), 미스틱 시포트, CT.  
이번 시즌 첫번째 랍스터 다리를 깨는 날. 랍스터는 자연 그대로 제공되며 수입은 지역 자선단체에 나누어 진다. 방문자들을 위해 음식 시식과 박물관 관람을 모두 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한다. 각각의 티켓을 따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http://www.mysticseaport.org/event/lobster-days-2/>

[hs0h@bostonkorea.com](mailto:hs0h@bostonkorea.com)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한,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임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워랑  
노스이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메모리얼병원 재활의학과 수마(이)지  
워싱턴 디씨 통증병원 임장  
대구대학교 외과 교수  
삼육대학교 외과 교수  
영남대학교 교수 | 원과장  
현암대학병원 재활의학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Exclusive listing - Cambridge Townhouse  
\$799,000 / 2 Bed 2 Bath / 1477sq  
최고의 위치  
Fully Renovated 조용한 심금하우스같은 타운하우스  
운동바닥 / 새로운 전기 난방 시스템 / 세탁기 / 근창고

최고급 디자이너 화장실  
개인 야드 / Dock / Court Yard  
하버드 까지 도보로 10분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 백승희 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전화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http://www.graceaom.com)



NBA에서 영구 제명된 도널드 스틸링 구단주(우측)와 여자친구 스타비아노

# 흑인 비하 발언 NBA구단주 영구 제명

## LA클리퍼스 구단주 스틸링, “흑인 내 경기장에 데려오지 마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흑인 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미국프로농구(NBA) 소속팀인 LA클리퍼스의 도널드 스틸링 구단주가 NBA에서 영구 제명됐다.

애덤 실버 NBA 커미셔너는 지난 달 29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틸링 구단주에게 최고액인 2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구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스틸링은 최근 자신의 여자친구가 은퇴한 NBA 스타 매직 존슨과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한 것을 봤다. 이를 두고 스틸링은 여자친구에게 “다시는 흑인을 내 경기장에 데

려오지 마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지난달 27일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인종 차별 사건으로 번지게 됐다.

사건 당사자인 매직 존슨은 지난달 28일 방송에서 즉각 스틸링을 맹비판했다. 존슨은 “모든 흑인들을 대표해서 정말 화가 난다. 지구상에 이런 발언을 용인해줄

수 있는 사회와 리그는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존슨은 “레이커스에 처음 입단했을 때 가졌던 파티 모임에 스틸링도 있었다. 그와 우정이 있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승부를 겨루는 것이 스포츠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스틸링은 스스로 자신의 팀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 사람은 구단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살럿 밥캐츠 구단주인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같은 구단주로서 이런 관점에 대해 역겹다. 은퇴한 선수로서 스틸링처럼 노골적으로 인종 차별을 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NBA에서 대부분이 흑인선수다. 이 모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격분했다.

코비 브라이언트·르브론 제임스 등 현역 NBA 스타들도 비난에 동참했다.

말레이시아 순방 중이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무식한 사람은 꼭 무식을 광고하고 싶어 한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역겹다”고 비난한 뒤 “미국은 인종차별의 유산에 대해 끊임없이 싸워왔고, 매일 벌어지는 그 흔적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가 난 것은 스틸링이 소유한 클리퍼스 소속선수들도 마찬가지였다. 클리퍼스 선수들은 구단주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달 28일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를 앞두고 코트 센터서클에 구단마크가 새겨진 상의를 벗어던지는 집단행동을 했다.

스틸링의 발언으로 클리퍼스 구단도 풍랑에 휘말렸다. 후원사들이 줄줄이 후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클리퍼스 간판 블레이크 그리핀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기아자동차 미국 법인이 후원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북아메리카 원주민이 운영하는 추마시 카지노 역시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후원 계약 해지를 클리퍼스 구단에 통보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방송 KTLA는 “스틸링의 발언 이후 11개 업체가 클리퍼스 후원 계약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스틸링은 지난 1981년 LA 클리퍼스의 전신인 샌디에이고 클리퍼스를 매입해 구단주가 됐다. 자산이 19억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재벌인 스틸링은 잦은 인종차별적인 행동으로 여러 번 물의를 빚었다.

hsoh@bostonkorea.com

### 미 학생 이공계 기피 현상 기업 인력난 심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 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이공계 과목이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이공계(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인력난이 빚어지고 있다.

‘US뉴스앤월드리포트’와 ‘레이테온’이 개발한 STEM지수(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지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학과 과학 지식을 요하는 일자리 수가 2000년에는 1,280만 개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1,680만 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이공계 전공에 대한 미 고교생들의 관심은 하락했고 현재 2,000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노동통계청, 칼리지보드와 미국교육통계센터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최근 미국이 경제 침체를 맞이 이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공계 기피 추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우주항공 및 전력 산업용 부품을 제조하는 ‘메템’의 최고경영자인 스티븐 골드스웨이트는 이공계 인력난이 “우리 시대가 맞고 있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적합한 인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메트로 폴리탄정책프로그램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나단 로스웰은 4개의 이공계 분야 중 단 하나라도 갖춘 교육 기관은 개인의 고소득 일자리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한다. 그는 학교가 수학과 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으면서 이공계 기피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템의 골드스웨이트는 “학생들에게 이공계 과목의 흥미로운 면을 알리는 것”이 교육자, 시민 단체, 그리고 기업들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hsoh@bostonkorea.com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모기지를 위해**

PNC Mortgage | 성취하는 당신을 위해

더 좋은 조건과 고정금리 모기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출 전문가들, 미국, 경제가 불투명해질 때를 막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PNC 모기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지 못할 것 같아도 대출 기간 동안 우리가 더 좋은 대출 옵션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서는 올린 후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PNC 모기지 대출 담당자에게 신청해 작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imberly Moon**  
Mortgage Loan Officer  
NMLS# 838021  
857-204-0174  
One Wall Street  
Burlington, MA 01803  
kimberly.moon@pncmortgage.com

모기지를 신청할 때 PNC 모기지를 선택하면, PNC 모기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NC 모기지는, PNC 모기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NC 모기지는, PNC 모기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돼지설사병으로 10% 폐사, 가격 폭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의 전체 사육 돼지 중 10% 이상이 PED(돼지유행성설사병)로 폐사돼 돈육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오하이오주에서 처음으로 발병된 PED는 현재 30개 주로 확산된 상태다. 미국돈육협회(NPB)에 따르면 2013년 6월 이후 돼지 700만

마리가 PED에 감염돼 폐사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사육 돼지수는 약6300만 마리로 집계됐다.

PED에 감염된 돼지는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하면 폐사한다. 특히 생후 21일 안된 새끼 돼지의 치사율은 최대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돈육위원회는 PED 연구 비용으로 약170만 달러를 썼지만 예방 백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 농무부는 PED가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전했으나 1년 동안 이어진 바이러스 확산 소식에 양돈농가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켄 매튜 미국농무부의 관계자는 올해 미국에서 출하되는 돈육 물량이



돼지유행성설사병(PED) 확산은 돈육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약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돈육 가격은 이미 1파운드당 3.8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새끼 돼

지의 폐사로 돼지 농장의 순이익도 줄고 있어 이번 바이러스 확산은 미국 전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hsoh@bostonkorea.com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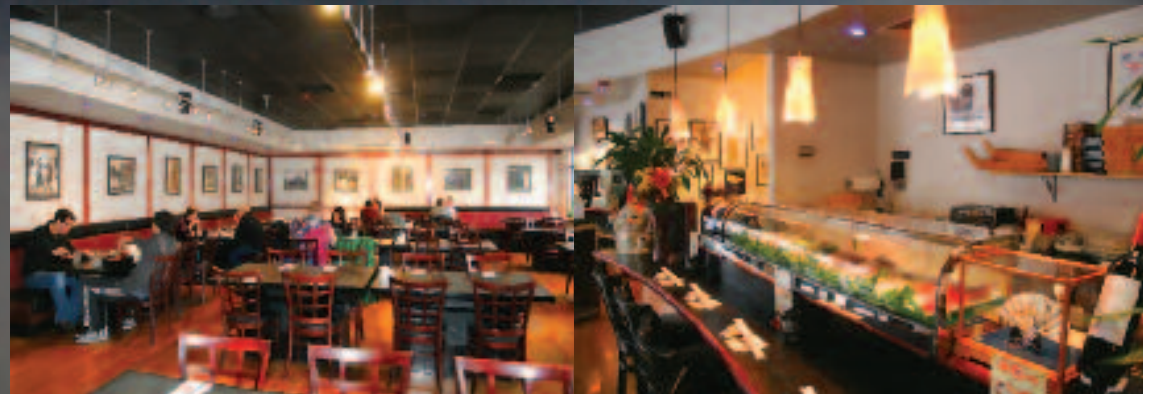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모든 테이블에 최신 바베큐그릴을 설치, 한결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http://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4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사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29) 자식들이 부자되는 방법

자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남은 자산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집을 살 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기에 결정하지 못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매우 높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Gift Tax)는 주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받는 사람은 액수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년에 \$14,000씩 세금 없이 자식은 물론 누구에게나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철수(아들)에게 \$14,000, 어머니도 철수에게 \$14,000씩 총 \$28,000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딸(영희)한테도 \$28,000, 손자 손녀에게도 같은 금액을 매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집을 사는데 \$10만 불을 도와 줘도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그 해에 세금보고 할 때 \$10만 불에서 \$14,000을 제하고 나머지를 선물했다고 보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평생 기준으로 534만 불(\$5,340,000)까지 면제(exemption)가 됩니다.

한인 동포 일 세대는 열심히 일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미리 돈을 주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선물하는 것보다 상속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아이들이 더욱 큰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자금인 IRA, 401k, TSP, SEP, SIMPLE, Rollover IRA, 등은 연세가 70 1/2가 되면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RMDs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정확한 표현이 없기에 직접 영어를 사용합니다.

RMD 계산법은 지나간 해 12월 31일 자 은퇴자산을 평균 수명 도표(Uniform Lifetime Table)에 의해서 나누면 됩니다. 연세가 71인 경우에는 은퇴자산을 도표에 있는 26.5로 나누는 숫자가 RMD가 됩니다. 50만 불의 은퇴자금인 경우에는 \$18,868 (50만 불 / 26.5)가 RMD가 됩니다. 정해진 RMD를 찾지 않을 경우는 세금은 물론 벌금이 50%가 되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매년 RMD로 찾아야 하는 액수가 조금씩 많아집니다. 이유는 돌아가시기 전에 세금혜택을 준 은퇴자금을 더 찾아서 세금을 내라는 뜻입니다. 은퇴하는 동안 RMD를 생활비로 사용한 후 부모 모두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속받은 은퇴계좌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상속되는지 세금부담은 어떠한

식으로 부과되는지를 알아봅시다.

“상속받는 IRA로 커다란 부를 형성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적게 하며 상속받은 자금을 장기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혼자되신 배우자가 돌아가면서 유산으로 딸인 영희 (Designated Beneficiary)에게 상속합니다. 영희의 나이는 50이며 상속되는 금액은 100만 불이라고 가정합니다. 영희가 51살 때부터 상속받은 IRA에서 일정한 액수를 찾아야 합니다. 정해진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산 받을 때 사용하는 평균 수명 도표(Single Life Expectancy Table)를 이용합니다. 이 도표는 상속받는 사람의 나이 0살부터 111세까지 있습니다.

나이가 51살 도표에 의해서 찾아야 하는 액수는 \$30,030 (100만불 / 3.3)입니다. 이것이 상속받는 자녀가 받아야 하는 RMD 금액입니다. 그다음 해 받아야 하는 액수는 33.3에서 1을 빼 32.3으로 나누어 찾으면 됩니다.

자녀가 찾아야만 하는 액수는 조금씩 나눠서 찾기에 세금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상속받는 사람의 나이가 젊기에 유산 대부분을 장



기투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100만 불의 자산을 8% 이자로 30년 동안 투자한다면 800만 불로 증가하는 놀라운 액수가 됩니다. 이것은 장기투자할 때 적용되는 마법의 복리이자(Compound Interest) 때문입니다.

금융자산은 설정된 상속수혜자에 의해서 상속하는 것이 프로베이트를 통하지 않고 바로 상속된다고 상

속의 기본 칼럼에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이들에게 증여세 없이 \$14,000을 주느냐 마느냐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상속되는 금융자산이 남은 자식들에게 재정적으로 커다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푼이라도 내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어야 대접(?)받는다고 합니다.



\$90이상 구매 고객님의 OR 바이오에센스를 구입하시는 고객님의 해피바스 라임에센스 후레시 바디워시 세트 (500ml+refill 250ml)를 증정합니다



\$190이상 구매 고객님의 해피바스 라임에센스 후레시 바디워시 세트 (500ml+refill 250ml)와 설화수 베이직 디럭스 샘플키트 및 파우치를 증정합니다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MAY 2, 2014 - MAY 8,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http://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 SPRING BRINGS HEALTHY SAVINGS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COME ENJOY THE TASTE OF **SPRING WITH HEALTHY**  
**SPRING CHOICE** FOR THE WHOLE FAMILY TO ENJOY!

봄을 맞아 건강한 먹거리를 H마트에서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HAIOREUM** 해오름 순밥  
 COOKED WHITE RICE  
 7.4oz. x 12ea./box  
**\$12.99**

해오름 유자차 2.2 lbs.  
**HAIOREUM KOREAN HONEY CITRON TEA**  
**\$4.99**

광동 쌍화탕/비타500  
**GWANGDONG HERB TONIC/VITAMIN DRINK**  
 3.3 fl.oz. x 10btl./pkg.  
**\$4.49**

해오름 12.6oz. 누구나 초밥박사  
**HAIOREUM SEASONED FRIED BEAN CURD**  
**\$2.99**

### HMART CAMBRIDGE NOW OPEN

THANK YOU FOR THE GREATEST GRAND OPENING

고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H마트 캠브리지점이 성공적으로 오픈하였습니다. H마트를 격려해 주시고 좋은 의견과 관심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H마트는 즐거운 쇼핑문화, 건강한 식품문화를 선도하는 고객 만족 서비스로 고객님들의 사랑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HMART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Central Square Station)  
[cambridge@hmart.com](mailto:cambridge@hmart.com)  
 Store Tel. 857-209-2747

**BIG SAVINGS FOR SMART SHOPPERS LIKE YOU!**  
 오늘부터 H마트 스마트 카드로 똑똑! 소리나게 장보세요.

32년 전통의 미국 최대 고국선물관  
**한마름 고국통신판매**  
 SHOP 24/7 AT [WWW.HMART.COM](http://WWW.HMART.COM) OR CALL  
**1-800-648-0980**

32년 전통의 한아름 고국통신과 함께 한국에 계신 부모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 한아름 고국통신판매는 1년 365일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ITH SMART SAVINGS CARD  
**CHUNG JUNG ONE**  
 Oyster Sauce 청정원 굴소스 1.1 lbs.  
**\$6.49**

WITH SMART SAVINGS CARD  
**해오름**  
 초가집 시골된장 HAIOREUM Soybean Paste 6.6 lbs.  
**\$7.99**

WITH SMART SAVINGS CARD  
 매콤 새콤 달콤한 별미!  
**Paldo**  
 팔도 비빔면 Bibim Men 4.58oz. x 5ea./pkg.  
**\$3.49**

WITH SMART SAVINGS CARD  
 무유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분이 더 가득한  
**Champagne Mango**  
 샴페인 망고 box  
**\$11.99**

WITH SMART SAVINGS CARD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8**

**MOM**  
**\$40 OFF CUCKOO IH RICE COOKER**  
 AND GET A FREE GIFT!

**CUCKOO Yobo Home**  
 미주 최대 아시아계 마트 H마트와 국내 전기밥솥 브랜드파워 1위 쿠쿠가 함께하는 봄맞이 가정의 달 4월 할인 + 사은품 증정 이벤트! 어머니날 전기밥솥 선물용 호도하고 사은품도 받아주세요!  
**MAY 8-18, 2014**  
 \*한정된 상품에 한하오니, 조기종결이 될수 있습니다.

WITH SMART SAVINGS CARD  
**Scallion**  
 파 bun./for  
**\$1.00**

WITH SMART SAVINGS CARD  
**Fuji Apple**  
 후지사과 lb.  
**\$1.48**

WITH SMART SAVINGS CARD  
**I LOVE TOFU**  
 아이러브 두부 All Varieties/14oz.  
**\$0.88**

WITH SMART SAVINGS CARD  
**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6.99**

WITH SMART SAVINGS CARD  
**Pork Whole Back Bone**  
 돼지 등갈비 (홀피스) lb.  
**\$4.99**

WITH SMART SAVINGS CARD  
**Boneless Pork Loin**  
 돈가스 lb.  
**\$4.99**

WITH SMART SAVINGS CARD  
**Chicken Drumstick**  
 닭다리 lb.  
**\$0.79**

WITH SMART SAVINGS CARD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lb.  
**\$4.99**

WITH SMART SAVINGS CARD  
**Norwegian Mackerel**  
 노르웨이 고등어 400-600's lb.  
**\$2.49**

WITH SMART SAVINGS CARD  
**Uni**  
 성게알 (우니) 2.11oz./pkg.  
**\$6.99**

WITH SMART SAVINGS CARD  
**Honjake**  
 Scottish Salmon 스코틀랜드 유기농 연어 lb.  
**\$9.99**

WITH SMART SAVINGS CARD  
**Masago**  
 마사고 1.1 lbs./pkg.  
**\$6.99**

WITH SMART SAVINGS CARD  
**TONGTONGBAY**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1 lb.  
**\$3.99**

WITH SMART SAVINGS CARD  
**HAIOREUM Premium Frozen Oyster**  
 해오름 청정생굴 8oz.  
**\$3.49**

WITH SMART SAVINGS CARD  
**AJINOMOTO Hondashi Bonito**  
 Soup Stock 아지노모토 혼다시 1.32 lbs.  
**\$9.99**

**Organic 100% DELICIOUS**  
 H마트 유기농 제품으로 더 건강하세요.

**ORGANIC FARM**  
 Premium Organic Haiga Mai Rice 유기농장 유기농 안심배아미 15 lbs.  
**\$34.99**

WITH SMART SAVINGS CARD  
**AJINOMOTO Gyoza**  
 Dumplings 아지노모토 만두 All Varieties/24.7oz.  
**\$5.49**

WITH SMART SAVINGS CARD  
**WESSON Cooking Oil**  
 웨슨 식용유 Vegetable/Corn/Canola - 128fl.oz.  
**\$6.99**

WITH SMART SAVINGS CARD  
**OHSUNG Yes! Chips!**  
 오성 예스칩스 Roasted Potato/2.75oz.  
**\$1.99**

WITH SMART SAVINGS CARD  
**Pine Salt Toothpaste**  
 송염 치약 6oz.  
**\$2.49**

WITH SMART SAVINGS CARD  
**세라믹 칼 Ceramic Knife**  
 F-2113~8/ All Colors/ea.  
**\$34.99**

WITH SMART SAVINGS CARD  
**Cotton Slippers**  
 천실내화 All Colors/pair  
**\$1.99**

**WE'RE NEVER CLOSED**  
 Store hours vary between locations. Please call the one nearest you for exact times.  
**H마트는 1년 365일 항상 오픈합니다.**



**I-93 NORTH:** Exit 37B (into I-95 S/MA-128 S) toward Waltham, Exit 32B-32A toward Burlington,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Arlington,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I-3 SOUTH:** Exit 25A (into I-95 S/MA-128 S) and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 (South),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AND THAT'S WHAT YOU GET WITH THE BUYING POWER OF 45 STORES.**  
 H마트는 최고의 신선함과 뛰어난 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전역 45개 매장을 통합관리하는 구매력으로 온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상의 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offer the freshest products. If that means we have to get our fish from the Fulton Fish Market, we do it. If it means we have to negotiate directly with farmers, it's done. If it means we have to go out of our way, and bend over backwards for the best price, it's not a problem. So when the time comes to make that "magical" meal... Hmart think your ingredients had better be, better than the best.

Find us on: **facebook**  
 H마트 페이스북에 놀러오세요!  
[www.facebook.com/hmartofficial](http://www.facebook.com/hmartofficial)  
 Scan our Qr-code with your smart phone for more information.

# 미 경제, '올드 노멀'로 복귀하기 시작

## 월가 낙관론 "이제 '뉴 노멀' 끝났다...맞바람 진정" 서머스 "장기 정체 여전 걱정"...고용 회복 '속 빈 강정' 경고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미국 경제가 금융 위기 이후 두드러졌던 '뉴 노멀'에서 '올드 노멀'로 복귀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블룸버그가 28일 전했다.

뉴 노멀은 핑크의 빌 그로스 등이 쓰기 시작한 용어로 극심한 저성장과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및 정부 규제 강화,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한다.

반면, 금융 위기 이전을 지칭하는 올드 노멀은 고성장과 활발한 소비, 낮은 실업률 및 레버리징(차입)에 기반한 경제를 말한다.

뉴욕 소재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닐 듀타 수석 미국 경제학자는 "미국 경제가 올드 노멀로 복귀하기 시작했다"면서 "경기를 주춤하게 했던 맞바람이 진정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긴축이 완화되고 가계 차입도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도이체방크의 뉴욕 소재 카를 리카도나선 임 미국 이코노미스트도 "올해가 올드 노멀로 복귀하는 원년인지 모른다"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뉴 노멀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쿄-미쓰비시 UFJ의 크리스 립스키 수

석 금융 이코노미스트도 "맞바람이 진정되고 있다"면서 "올해가 희망찬 해로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이 여전히 밝다"고 말했다.

블룸버그가 이달 들어 전문가 조사한 결과 올해 미국의 성장이 최소한 3%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핑크의 6명 투자 부책임자 중 한 명인 스킷 매터는 지난 25일 "앞으로 몇 년 (미국 경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성장이 최소 2%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이는 지난 몇 년 이어져 온 2% 미만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뉴 노멀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이 시 기상조란 견제론도 제기됐다.

성장이 회복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전 평균치를 밑돈다'는 것이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지난 25일 "미국 경제가 계속 장기 정체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걱정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초 완화를 통해 완전 고용을 끌어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머스는 "성장이 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 초 완화 덕택"이라면서 "이제 필요

한 것은 느슨한 통화 기조가 아닌 재정 부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 낙관론에 따라 거품 우려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RBS 캐피탈의 조나선 골렘 미국시장 수석 전략가도 마켓워치에 5년여 계속된 미국의 상승장이 몇 해 더 이어질 수 있지만 "단 한번의 침체로 그 발판이 와해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0% 뚝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올 들어 0.81% 상승하는데 그쳤음을 경고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는 미 노동부 분석과 비정부기구(NGO)인 '내셔널 임플로이먼트 프로젝트'의 새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고용시장 회복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노동부 분석과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실업률이 6.7%로, 침체 이후 개선되기는 했으나 패스트푸드와 식품 부문 등의 저임금직 위주로 일자리가 회복된 탓이 크다는 것이다.

NGO 보고서는 한 예로 2008-2010년 기간에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의 22%가 저임금직이었던데 반해 이후 총원된 자리의 44%가 저임금직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4년 민간 부문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40%가 미국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안 취약성 경고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 사이버 보안 당국은 28일(현지시간)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보안 결함으로 해커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의 '컴퓨터 긴급 대응팀'(CERT)은 이날 낸 성명에서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6~11 버전의 보안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컴퓨터 사용자들은 별도 보호 조치를 하거나 공식적인 업데이트가 제공될 때까지 다른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을 중단한 윈도XP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다국적 보안 기업인 파이어아이(IE)의 취약점을 이용한 새로운 제로데이(zero-day) 공격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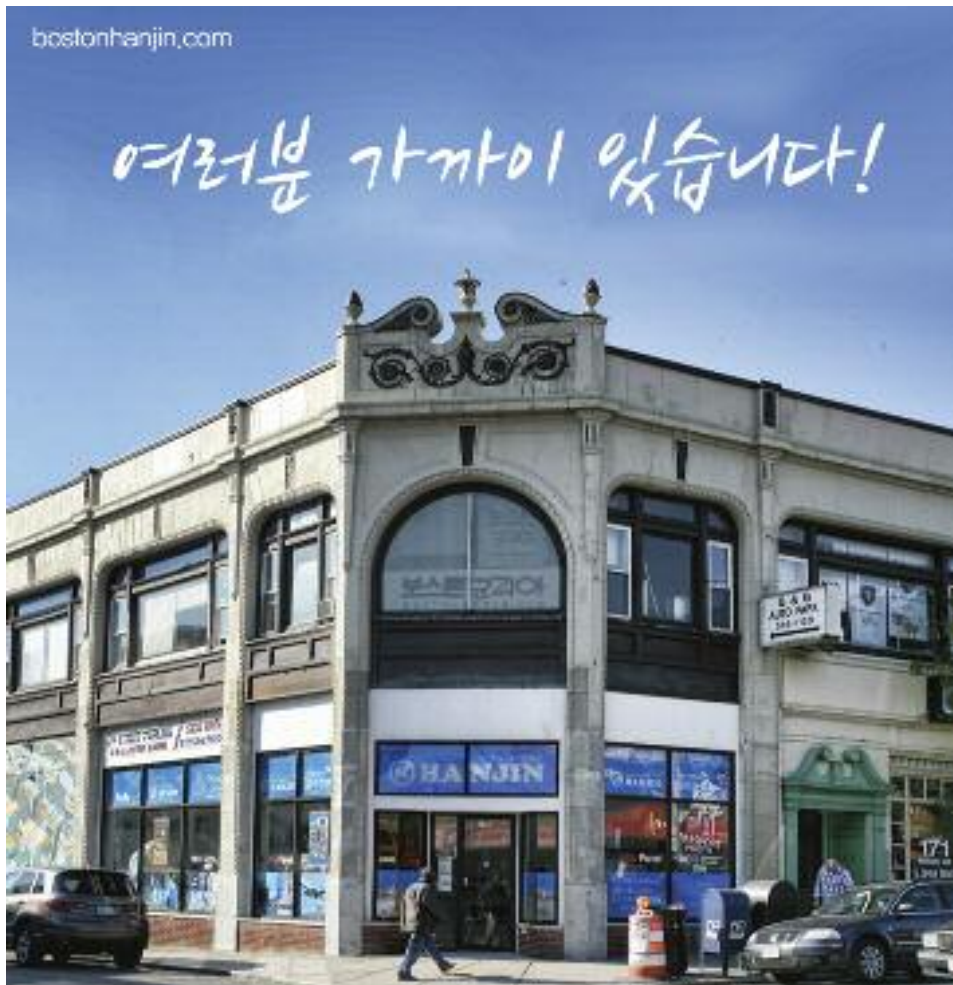
제로데이 공격이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대응책이 마련되기 전에 벌이는 보안 공격을 의미한다.

IE의 보안 취약점은 주로 6~11 버전에 분포하고 있지만 이번 공격은 '오퍼레이션 클랜데스타인 폭스'(Operation Clandestine Fox)라는 캠페인 형태로 IE 9~11 버전에 집중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IE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공격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할 때까지 당분간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결혼식비디오예약중 Nabis Studio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CJ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mailto: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617.527.7888

단체 식·노래방 시설 완비!

월-목 11:30~3:00/4:30~10:30

금-일 11:30~3:00/4:30~11:00

잊을 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확! 달라진 메뉴와 맛으로 **압구정**이 여러분을 모십니다!



"기계냉면도입"

입에서 살살 녹는 생갈비와 로얄양념갈비  
그리고 푸짐 칼칼한 아구찜과 곱창 전골!!



9시 30분 이후 단체 식·노래방 이용 가능!

단체 손님 예약 환영!

뉴 압구정 찾아 오시는길  
(뉴튼 센터 역에서 차트 3분거리)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617.527.7888

단체 식·노래방 시설 완비!

## AP 준비하기 (6) 2차대전 이후

지난 칼럼에서 다루었던, AP가 사랑해 마지 않는 주제인 혁신주의 (Progressivism), 뉴딜,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 등은 모두 20세기에 일어난 미국사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의 역사에 해당하는 주제들이다. 최근 몇 년 간 출제된 AP나 SAT II의 미국사 시험 문제 중 20세기에 관련된 특히 1960년대 이후 즉, 지난 반 세기 정도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DBQ나 FRQ 에세이 주제는 점점 더 “현대화”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진도를 마치지 않았다고 해도 과거의 문제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둘 것을 권한다. (참고로 내년부터 바뀐 포맷으로 시행될 AP 시험 역시 과거에 다루지 않던 1492년 이전과 1980년 이후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미 작년엔 치러진 몇몇 SAT II 시험에서는 1960년대 이후 등장한 ‘게이 인권 운동’ 이라든가 AIM의 인디언 권익 운동에 관한 문제가 등장해서 학생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의 미국사는 미국의 세계 제 2차 대전 개입과 참전을 기점으로 접근해볼 수도 있다. 미국사 시험은 대체로 ‘전쟁’ 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은 그 전쟁의 배경과 그것이 미국민들의 삶에 끼친 영향, 혹은 장, 단기적인 귀결 등을 챙겨서 공부해둬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2차대전의 경우 특히 그렇다. 첫째, 2차 대전은 미국을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패권국으로 만든 랜드마크 사건이었고, 둘째,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은 소련과 모든 면에서 경쟁하는 냉전 (Cold War)에 돌입하게 되며, 셋째, 2차 냉전과 경제적인 번영의 시기 미국은 자본주의적 소비양식에서부터 이데올로기,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획일성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된다. 마지막으로 넷째, 2차 대전은 각기 다른 마이너리티 그룹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가령, 일본계 이민자들은 미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었으나, 중국계 이민자들은 중국인 이민 금지법이 폐지 되는 등 지위가 향상되었고, 여성 노동이 빛을 발했고 (물론 그들은 종전 후 ‘교외의 현모양처’ 상을 문화적으로 강요받게 되지만), 전쟁 중 “방산업에 대한 동등한 접근 기회” “군대 내에서의 인종 차별 금지” 등을 주장했던 경험은 이제 인권 운동의 경험으로 공고화될 것이었다.

눈치 챘겠지만, 여러분은 제일 먼저 (1) 2차대전 이후 Cold War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왜 발생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대외적인 흐름은 1945 원자폭탄-1947 트루먼 독트린 & 마셜 플랜 - 1948 Berlin Airlift - 1949 중국 공산화 - 1950 한국전쟁 하는 식으로 타임라인을 만들고 국내의 냉전은 Hollywood 10, Alger Hiss, McCarthy, Rosenbergs 등 주요 사건들의 핵심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가령,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 What were the Cold War fears of the American people in the aftermath of the Second World War? How successfully did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address these fears? (2001년, DBQ)

• Analyze the influence of TWO of [Yalta Conference/ Communist Revolution in China/ Korean War/ McCarthyism] on American-Soviet relations in the decade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1996년, FRQ)

• How do you account for the appeal of McCarthyism in the United States in the era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1997년, FRQ)

• Analyze developments from 1941 to 1949 that increased suspicion and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2006년 Form B, DBQ)

(2) 두번째로 1950년대의 1) 교외화, 2) 소비주의 및 물질문명

3) 보수성 및 획일성 4) 전후 경제 정책 등을 중심으로 챙겨봐 할 것이다.

• To what extent did the decade of the 1950's deserve its reputation as an age of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onformity? (1994년, FRQ)

(3) 그러나 1950년대의 가치관에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사회 운동들에 의해 상당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반문화 (Counter Culture)라든가, 60년대 여성주의의 확립 그러하다. 특히 1960년대 여성주의는 왜 시몬느 드 보봐르의 “(젠더로서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명제를 통해 여성 억압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가정과 가부장주의를 돌아보게 되었고, 1950년대 중산층의 이상적인 여성상이란 사실 여성들의 욕구가 아닌 사회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여성성이었음을 고발하는 베틀프리트의 Feminine Mystique (1963)도 널리 읽혔다. 중산층 여성운동이라는 비판이 일기는 했지만, 60년대 여성주의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평등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

(4) 2차 대전이 마이너리티 그룹에게 가져온 변화는 어쨌거나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친 50~60년대의 흑인 인권운동은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에서부터 1964년 민권법, 1965년 투표권법, 6년 Affirmative Action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꼼꼼히 정리해둘 것. 다음과 같은 질문에 연습해두는 것이 좋겠다.

• Analyze the extent to which two (2) of the following transformed American society in the 1950s and 1960s. The Civil Rights Movement/ The Anti-war movement / The Women's movement (2005년 FRQ)



# 한의원 선유당

**진료 과목**

- 통증치료 알러지
- 불임 갱년기 여성질환
- 여드름 한방피부미용(주름개선 안면침)
- 소아진료 성장침 비염 아토피
- 교통사고 유학생 여행자보험 적용가능



[www.sunudang.com](http://www.sunudang.com)

**1208 VFW Parkway #201  
Boston MA 02132  
617.327.1812**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mailto: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http://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 보스톤 라틴 스쿨 2년만에 1위 탈환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선정 최고 고등학교 벨몬트 고등학교 3위로 약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 라틴 스쿨이 2년 연속 자리를 내줬던 스테이지 차터 스쿨(Sturgis Charter Public School)을 제치고 올해 최고의 고등학교로 선정됐다.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news & worldreport)는 지난 21일 미국 50개 주 19,411개 공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고의 고등학교(금메달)로 선정된 500개교를 발표했다.

보스톤 라틴 스쿨에 이어 2위에 오른 학교는 어드밴스드 매스 앤드 사이언스 아카데미 차터스쿨(Advanced Math & Science Academy Charter School)로, 2년 연속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학교는 2년 전만 해도 10위권에 들지 못했던 곳으로, 지난해부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올해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룬 곳으로는 벨몬트 고등학교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9위에서 3위로 대폭 향상한 것. 이어 웰슬리 고등학교(Wellesley High School), 브롬필드 스쿨(The Bromfield School), 미스틱 벨리 리저널 차터 스쿨(Mystic

Valley Regional Charter School), 도버 샤본 리즈널 고등학교(Dover-Sherborn Regional High), 메드필드 고등학교, 오브라이언트 수학과과학 고등학교(O'Bryant School Math/Science), 샤론 고등학교(Sharon High School)순으로 10위권에 들었다.

이번 선정 기준은 2011~2012년 12학년 재학생들의 대학 준비도, 영어와 수학 학습 성취도 그리고 교사 학생수 비율 등이다.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따진 후 소수민족 출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고려했고, 다음 단계로는 AP나 IB 수업 성취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2개교가 전미 순위 500위 안, 금메달권에 들었으며 그 중 가장 최고의 고등학교로 뽑힌 보스톤 라틴 스쿨은 미국 전체 순위로는 56위다.

보스톤에 위치해 있는 보스톤 라틴 스쿨은 7학년부터 12학년 과정까지 있고, 전체 학생 수 2,352명 중 52%가 소수민족 학생이다.

학생 19명 당 교사 1명의 비율로,

97%의 학생이 AP코스를 이수했으며 남학생이 45%, 여학생이 55%를 차지한다. 또한 보스톤에 있는 27개의 공립학교 중 하나로 하버드 입학률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지난해에 비해 눈길을 끄는 것은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스테이지 차터 스쿨이 올해는 매사추세츠 주 10위 안에 들지 못한 것으로, 전미 50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hckim@bostonkorea.com

### 학교 순위

1. Boston Latin School
2. Advanced Math & Science Academy Charter School
3. Belmont High School
4. Wellesley High School
5. The Bromfield School
6. Mystic Valley Regional Charter School
7. Dover-Sherborn Regional High
8. Medfield High School
9. O'Bryant School Math/Science
10. Sharon High School
11. Lexington High School
12. Acton-Boxborough Regional High
13. Cohasset High School
14. Winchester High School
15. Boston Latin Academy



## 2016년 SAT 예시문항 공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2016년부터 대폭 바뀌는 미국의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의 예시문항이 공개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6일 자 보도에 시험 주관기관인 칼리지보드(CB)가 개정된 SAT 예시문항을 200여쪽 분량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개정 SAT는 독해 52문항(65분), 쓰기과 언어(Writing and Language) 44문항(35분), 수학 57문항(80분)으로 총 3시간 동안 치러진다. 작문 시험은 종전 필수에서 선택사항으로 바뀌며 50분을 본다.

독해는 고난도 어휘 대신 실생활

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들의 뜻을 문맥 안에서 파악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된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아 비효율적인 암기를 일삼아야 하는 고난도 어휘 관련 문항이 사라진다는 것.

객관식 문항은 오지선다형에서 사지선다형으로 바뀌고, 오답에 대한 추가 감점은 폐지된다.

또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작문 시험도 지문을 주고 수험생이 필자의 논지 전개를 분석하는 글을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수학 영역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사회과학 텍스트 분석에서도 그래프 해석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hckim@bostonkorea.com

Avoid the Summer Slide by enrolling at JEI.

# Summer 2014

**Avoid Summer Learning Loss**

JEI Programs are aligned with **Common Core State Standards** to give students the advantage they need. Children can customize their summer classes by selecting subjects they need the most help in.

- JEI Math
- JEI English
- JEI Reading & Writing
- JEI Problem Solving Math
- JEI Korean / 재능한글

**재능교육 JEI Learning Centers**

FREE Enrollment from June 1-30

T. 781-365-0075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www.jeikids.com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 컷 25불 / 여자 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IVY 말고 SKY로? (3)

에 입시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원하는 대학의 다른 수시전형에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반대로 학교 내신 성적을 보지 않고 지원학생을 지필고사만으로 평가했고, 수시모집 횟수에 제한이 없어 외국에서 3년 이상 유학 경험만 있다면 재외국민 특례로 큰 혜택을 받았던 이야기들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된지 오래다.)

다만 단순히 유학 경험이 있다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많은 유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인데, 3년, 6년, 12년 해외교육과정 이수 특별전형의 최소 조건일 뿐이다. 일단 재외국민 전형의 조건이 가장 '단순'한 연세대만 보더라도 "부모 모두가 지원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지원자의 부모는 고교 과정 6개월 포함... 만 1년 6개월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라고 나와 있다. 즉, 학생 혼자 혹은 학생과 학부모 중 한 명만 같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 연세대 재외국민 전형의 기본 지원 자격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고려대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3년 특례, 즉, 학생이 3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서 유학했을 경우 (예를 들어, 8-9-10 학년 혹은 9-

10-11 학년 해외 유학) 연세대와 지원 조건이 같지만 3년 연속이란 기준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3년 특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총 4년 이상을 공부해야 하고 (예를 들어, 8-9 학년 + 11-12 학년) 학부모 모두 유학 기간 중 총 2년 이상의 실제 체류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한가지, 고려대에는 연세대에는 없는 9년 특례가 존재하는데, 학생 혼자서라도 해외의 학교에서 한국의 초중고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9년 이상 이수했다면 학부모의 체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즉, 9년 이상 해외 유학생이라면 부모의 거주와 상관없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학부모 모두" 라는 조건은 사실 연세대와 고려대만 있는 조건으로 한국의 상위 대학들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에는 학부모 중 보호자 1인만 유학생을 동반해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학생에게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다만, 2015년도부터 한양대가 특별전형 방식을 바꾸며 연고대와 동일하게 지원자격을 바꾼다고 예고했다.) '특별한 경우'란 크게 3가지로 "해외근무 공무원", "외국 정부 혹은 국제기구 근무", 그리고 "유치 과학자 혹은 교수 요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의 설명을 보면 흔히 위 직업에 해당하는 당사자를 학생의

'보호자'로 지칭하고 나머지 한 사람을 '배우자'로 부른다. 이때, '보호자' 역할을 하는 부모 중 1인이 학생과 함께 해외거주 조건을 채우면 된다. 예를 들어, 보호자 역할을 하던 공무원 아버지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 배우자 역할인 어머니가 학생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해도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국적이나 해외 체류에 관계없이 학생 본인이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특별전형에 '본인만 외국인'이란 모집 구분이 존재하는데, 학생이 외국시민권을 획득한 후 2년간 외국학교를 다니게 되면 부모의 국적/해외거주에 상관없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있다. 물론, 대학교마다 수시전형과 모집요강이 매년 바뀌고,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부모동반 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학교별로 최신 요강이 발표되는 대로 확인을 해야 한다.

(다음 칼럼에 계속)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 2013.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십니까?

ISAL 어학원을 소개합니다

수준별 맞춤형 수업  
비즈니스 영어회화  
대학교 진학 준비(학사, 석사, 박사과정)  
ISAL 에서 시작하세요.



20 Linden Street 2nd Floor Allston, MA 02134  
855-595-5885  
www.isalusa.com info@isalusa.com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항공권 할인
-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HANA(4262)  
Cell.phone: 617-818-2772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최근 3년동안 프린스턴 대학이 하버드 대학과 학생들 선발 기준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치 두 학교가 원서를 공유하는 것 처럼 보일 정도로 두 대학에 동시에 입학 허가된 학생들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입학에 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프린스턴은 많은 전공을 제공하는 대학이 아니다. 다시말해 의대, 법대, 신학대, 교육대, 경영대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 과학, 그리고 공학등의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보다 가능하면 전공을 정하여 지원하는 학생들이 약간은 유리하다. 물론 학교의 커리큘럼도 분배커리큘럼(Distributional Curriculum)으로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하게 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는 많은 일반 과목수강을 요구하는 코어(Core)코스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공에 대한 깊이를 더 강조하는 대학이다. 학교의 이런 기본 교육철학을 이해한다면 복잡한 프린스턴 입학 과정을 손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올해 프린스턴은 총 26,641명이 지원, 1,939명이 입학허가되어 7.28%의 입학률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조기 지원에서 3854명, 정규지원에서 22787명이 지원하여 각각 714명, 1225명이 입학허가 되었다. 최근 입학허가된 학생들의 프린스턴 최종등록률이 높다보니 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에게 입학허가를 주는 것보다 대기자 명단에 학생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프린스턴이 예상하는 신입생 수는 1308명으로 예상 학생수보다 약 600명을 더 뽑았고 1141명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

지난해 대기자 명단에서 총 30명의 학생들

이 추가로 입학허가되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입학 허가된 학생들을 분석해보면, 51.6%가 남학생, 48.4%가 여학생이고, 48.3%가 소수 민족 학생들(흑인 10.5, 히스패닉계 10.4, 미국 원주민 1, 아시아인 어메리칸 23.4, 이중국적 이상자 4%)이다. 61%가 공립학교 출신이고, 13.9%가 가족중 최초의 대학생을 배출한 집안 출신 학생들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합격자의 25.3%가 엔지니어링 전공에 흥미를 보였고 이들 중 약 43%가 여학생들이란 점에서 갈수록 인문, 사회과학보다 이공계 진학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린스턴 역시 충분한 재정력으로 저소득 가정자녀들중 우수한 성적과 리더십을 가진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준 대학이다. 갈수록 경쟁은 심해지고, 해마다 더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최근 한국 학생들이 많은 최고 대학 입학

에서 경쟁력이 떨어질까를 고민해봐야 한다. 많은 아이비리그 입학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학생들은 매우 우수하다고 한다. 그러나 높은 SAT 성적과 비슷한 과외활동,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능력에 비해 다양한 과학 경시 대회 입상등이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대학에서 이런 활동의 신뢰성,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고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학교 역사 시간에 작성된 페이퍼를 콘코드 리뷰(The Concord Review) 잡지에 실리게 하면 명문대학 입학확률이 높다고 하여 많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주변 지인들을 통한 리서치 페이퍼 작성이 유행하고 있다. 이부분 역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며, 미국 대학이 단지 어떤 특정한 성취도로 대학입학을 허락하지는 않는다.

이런 편협한 컨설팅과 전직 대학입학 담당자들의 원서작성 도움이 결코 명문대학 입학에 큰 도움이 안되며 아울러 앞으로 후배 한

국 지원자들의 명문대학 입학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 원서는 지원자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잘 리드하고 꾸준히 관리 해줄 때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프린스턴 전직 입학담당자가 우수한 지원자들의 프린스턴 입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바란다.

지난 10년간의 프린스턴의 입학 결과를 표로 살펴보자.

필자가 그 동안 게재한, 그리고 앞으로 게재할 모든 칼럼들은 보스톤 교육원의 소유물들로서, 보스톤 교육원의 허가 없이 무단 변조, 복사, 양도, 배포, 전사, 판매, 출판,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및 각종 정보 서비스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배할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Year	Overall			Early Action			Regular Decision		
	Admit	Applied	Rate	Admit	Applied	Rate	Admit	Applied	Rate
2005	1807	16510	10.94	593	2039	29.08	1214	14471	8.39
2006	1790	17564	10.19	599	2236	26.79	1191	15328	7.77
2007	1791	18942	9.46	597	2276	26.23	1194	16666	7.16
2008	1976	21369	9.25	0	0	0	1976	21369	9.25
2009	2181	21964	9.93	0	0	0	2181	21964	9.93
2010	2148	26247	8.18	0	0	0	2148	26247	8.18
2011	2282	27189	8.39	0	0	0	2282	27189	8.39
2012	2095	26664	7.86	726	3476	20.89	1369	23188	5.90
2013	1931	26498	7.29	697	3810	18.29	1234	22688	5.44
2014	1939	26641	7.28	714	3854	18.53	1225	22787	5.38



2014년 여름방학은  
 청담 ReadWrite에 다양한  
 Summer Program과  
 함께 하세요!



● Summer Critical Reading & Writing (1학년~12학년)

설명문, 소설, 이슈토론 등 청담ReadWrite의 프로그램

● Summer Writing Workshops (3학년~12학년)

일주일씩 진행되는 라이팅 인텐시브 프로그램

● Tween&Teen Creative Writing (3~8학년, 9~12학년)

Short 스토리(시) (Poem)를 통해 라이팅테크닉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짜여 있는 프로그램

● Summer Days at ReadWrite (3학년~8학년)

리딩/라이팅수업과 여러가지 예체능 수업을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가, 축구, 미술, 영화메이킹 등)

● High school and College Prep Essay Writing (7학년~12학년)

하이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에세이라이팅프로그램

자세한 스케줄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을 참조하세요.  
 무료상담은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mailto:Info@BostonReadWrite.com)이나  
 전화 857-404-0170 로 연락주세요.

##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철



미주한인계수교장교회

##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별요일 제외)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395 루츠: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당목사: 김 덕 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Boston

**성목요일 (4/17)**  
8pm 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4/18)**  
3pm 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성토요일 (4/19)**  
9pm-부활 성야미사

**부활절 (4/20)**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세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Beth Israel Deaconess HealthCare®

**Min Keun Song, MD, MPH, CMD**

송민근 박사는 내과학과 노인의학 전문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하바드 보건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미주리 주립 대학, 하바드 의대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쳤습니다.

송박사의 외래 클리닉은 **Milton** 과 **Needham**에 위치해 있고 새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b>BIDHC-Milton</b> 199 Reedsdale Road Brooks 2 Milton, MA 02186	<b>North Hill</b> 865 Central Avenue Suite A301 Needham, MA 02494
---	--

For an appointment, please call:  
**617-696-7600**

유럽, 미국, 일본, 한국차 서비스

**태양자동차**  
Repair & Body

State Inspection

고객님은 차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저희가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하여 고객님의 꼭 맞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에 관한 모든 것이 저희 태양자동차에 있습니다.

**(T)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jin.com/

삼천리를 관망케운으로 삼는  
**제실일안식일에수제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당목사: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설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부: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계재운전: 화요일 저녁 8:30(스카이프)  
영양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제생원 센터 / 17년간 헌신들을 위해 매일 무료 점심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 머피와 샬리의 법칙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되고 만다'는 머피의 법칙(Murphy's law)은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머피의 법칙이란 일종의 경험법칙으로, 미국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 근무하던 머피(Edward A. Murphy) 대위가 1949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미공군에서는 조종사들에게 전극봉을 이용해 가속된 신체가 갑자기 정지될 때의 신체 상태를 측정하는 급감속 실험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조종사들에게 쓰인 전극봉의 한 쪽 끝이 모두 잘못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 기술자가 배선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생긴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다.

전극봉을 설계한 머피는 이를 보고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쓴다"고 말하였다. 머피의 법칙은 바로 여기서 유래하였다. 그 뒤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하여 되는 일이 없을 때 흔히 이 말이 사용되면서 일반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머피의 법칙은 자신이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히도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전개될 때 쓰는 말이다.

가령, 택시를 기다리면 빈 택시는 반대편에만 나타나는 경우, 자명종 시계를 오전 6시에 맞춰 놓으면 오후 6시에 울리는 경우,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를 찾으면 주유소는 꼭 반대쪽에 나타나는 경우, 바겐세일에 가보면 사려는 물건은 꼭 세일 제외 품목 등이 되겠다.

샬리의 법칙(Sally's Law)이란,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하여 되는 일이 없을 때 쓰는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머피의 법칙은 자기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히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전개되어 거

듭 낭패를 당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반대로 샬리의 법칙은 일이 우연히도 자기가 바라는 바대로 진행되는 경우에 쓴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보다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더니 자신의 기분을 알기라도 하듯 상대방은 자신보다 약간 늦게 도착하는 경우, 또는 맑은 날에 우산을 들고 나왔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경우,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시험 직전에 급하게 펼쳐 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경우 등이 모두 샬리의 법칙에 해당한다.

여기서 샬리는 1989년에 제작된 라이너(Rob Reiner) 감독의 미국영화 '해리가 샬리를 만났을 때 When Harry Met Sally'에서 계속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다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는 여주인공 샬리의 모습에서 빌려 온 것이다.

이러한 샬리와 머피의 법칙은 사진을 촬영할 때도 적용된다. 일상에서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때도 혹은 운 좋게 좋은 사진을 건지기도 한다. 사진기를 안 들고 나간 날이면 꼭 멋진 풍경과 순간이 펼쳐진다.

야경을 촬영하려고 장노출을 주고 있는데 플래시 든 사람이 앞을 지나간다. 카메라와 렌즈, 각종 장비까지 열심히 챙겼건만 정작 메모리나 배터리를 빠트린다. 오늘은 렌즈 하나만 들고 가지 했는데, 망원이나 광각으로 찍을 일이 생긴다. 남들은 멋진 풍경을 찍어 오는 장소인데 내가 가니 우중충하거나 비가 온다. 항상 AF가 빠르던 카메라가 순간 촬영하려고 하면 징징거리며 초점을 못 잡는다. 모델 앞에서 열심히 찍고 LCD를 확인하는 순간, 노출 다이얼이 -2인 것을 알았다. 열심히 찍고 이미지를 확인하는 순간, 파일 형식이 JPG Small 최저 화질인 것을 알았다. 백업하려는데, 메모리 에러가 난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일로 귀결된다. 머피처럼 안되는 일에 속상해 하며 살 것이 아니라 샬리처럼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



Photograph by SoungDae Yang

활한다면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힘있고 활기찬 생활이 되리라 확신한다.

머피 법칙의 절대적인 원칙 두 가지는 좋지 않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과, 동일한 사람에게만 반복해서 불행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일이 잘되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모든 것을 머피의 탓으로 돌려버린다. 이렇게 운(運)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을 탓해야만 한다.

사진을 촬영할 때도 노력을 경주하면서 포기하지 하지 않는다면 머피가 아닌 샬리가 옆에서 미소 지을 것이라고 믿자.

# Crouser & Suh PLLC

## 크라우저 & 서 로펌

###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446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다비(茶毘)

지난 한국 방문 중 고향 땅에 모셔진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게 되었다. 이제는 두 분이 이 세상과 이별하고 자식들과도 이별한 지 15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들이 없던 우리 친정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인 친정엄마의 유언같은 말씀이 있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딸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묘를 잘 관리하시겠다며 ..."

"내가 죽은 후에는 5년만 묘에 놔두고 화장을 해달라시던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돌아가신 지 14년이 되었다. 친정어머니가 남기셨던 유언 같은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자식 된 도리랄까 아니면 섭섭함일랄까,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직도 남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선지도 모를 일이다. 평생 아들자식을 낳고도 키우지 못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한(恨)에 대한 딸자식의 애뜻한 마음과 보답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 늘 교차한다. 이제쯤에는 두 분의 묘를 정리하고 화장을 해드려야겠다고 서로 지나는 말로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그 일에 대해 말문을 열지 않는 것은 아마도 마음에서 내어놓지 못한 까닭인 게다.

## 다비(茶毘)

허허로운 것들일랑 남겨두지 말고 태우고 태우다 하얗게 남은 재마저 날리다 날리다가 지친 먼지 터럭마저 허상의 껌대기들마저도 태우소서

남겨두지 말고 모두를 태우소서 남은 사람이 있다면 남겨 놓은 사람이 있다면 모두를 태우고 가소서

오르고 또 오르는 저 연기처럼 천상의 나팔소리 들리고 하늘 문 열릴 때면 가벼운 손짓으로 오르소서

남겨 놓은 사람들일랑 안타까운 사람들일랑 아쉬운 이별일랑 이제 태우소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인연 지어진 것들은 모두가 이별 앞에서 슬픈 일이다. 그 어떤 관계에

놓인 인연일지라도 말이다. 더욱이 부모와 자식의 천륜 관계의 인연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 아니던가. 특별히 어머니와 자식의 인연은 더욱 그럴 것이라는 것은 나도 어미인 까닭이다. 자식 앞에서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라 당연한 일일 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아니던가. 아이들이 어려서 손을 잡고 걷다가 넘어져 무릎에 상처라도 나게되면 엄마의 가슴은 말할 것도 없이 살이 아프고 뼈가 저린 그 아픔과 고통을 자식들 둔 어머니라면 경험했을 것이다.

이별은 이처럼 어떤 모습으로든 늘 슬프다. 떠나보내기 싫은 것은 남은 자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일은 더욱이 가슴 아픈 일일 게다. 모두가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과 영영 만날 수 없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어찌 사람의 마음으로 그 이별의 끝자락을 잡을 수 있으며 또 어찌 놓으며 보낼 수 있을까마는 그래도 그 안타까운 마음에 놓지 못하고 보내지 못하는 것일 게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15년의 세월이 흘러도 딸자식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셨던 어머니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인연의 끈'을 놓기 싫어서일 게다.

"다비의식(茶毘)의 불교적 의미는 사람의

육체는 집과 같고 정신은 그 집의 주인과 같아서 집이 무너지면 주인이 머물 수 없듯이 몸이 무너지면 정신이 떠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나무와 흙으로 지어지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꾸민 집에 대해 애착을 갖기 때문에 그 집의 더러움을 알지 못하고, 그리하여 집이 무너지더라도 홀연히 떠나지 못한다고 불교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죽은 후에나마 화장으로 이러한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할 텐데 매장함으로써 망령된 생각을 그대로 보존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한다."

단 한 번도 눈으로 직접 불교의 화장례 의식인 다비(茶毘)를 본 일이 없다. 다만 법정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스크린을 통해 보았던 경험 뿐이다. 그 의식을 보면서 슬픔이라기보다는 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세상과 그리고 더욱이 사람에게서는 주고받을 수 없는 그 무엇, 알 수 없는 그 어떤 절대자의 손에 의해 하늘과 땅을 이은 아름다운 춤사위 같은 그런 느낌의 경험을 했다. 지난 한국 방문을 하고 돌아오면서 늘 멀리 있어 부모님 기일조차 잊고 지낼 때가 많아 언니와 형부들께 늘 송구한 마음이였다. 이제쯤에는 엄마의 그 유언 같았던 말씀의 실천을 이뤄드리고 싶다.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TaLK (Teach and Learn in Korea)

대한민국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 강화와 국제사회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영어권 재외동포를 포함한 젊은이를 초청하여 영어를 가르치며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영어교사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자격

- 영어권국가의시민권자로서, 현지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 및 졸업자 또는 전문대 졸업(예정)자로서, 현지 4년제정규대학에서 2년이상수료한 재학(졸업)생 또는 전문대졸업(예정)자
- ※ 재외동포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대학 1,2학년생도 지원 가능
- ※ 영주권 미취득자인 재외동포도 지원가능하나, 현지에서 초·중등학교 교육을 받고, 체류기간이 최소 8년 이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계약기간 : 1년

2014.8월~2015.7월

-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2년제 포함)는 1년
- 재학생인 경우 6개월 가능하나, 심사시 1년 선택자를 우대

### 지원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기건강보고서 포함/ TaLK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 수업지도안 (TaLK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 성적증명서원본, 추천서(2매), 여권사본, 범죄사실증명서(Criminal Record Check)
- ※ 범죄사실증명서(CRC)는 연방정부(FBI) 발행 또는 지원자가 고등학교때부터 거주했던 모든주(State) 발행증 선택하여 반드시 아포스티유 공증을 득하여 제출

### 장학혜택

장학금(봉사활동비) 지급: 매월 150만원

- 입/출국 지원금, 숙소(원룸형태), 외국인유학보험, 정착금, 한국문화체험, 휴가 등 제공
- ※ 상세 사항 <http://www.talk.go.kr> 참조

### 지원마감일: 2013년5월30일

## 617.641.2830

### 접수처 : 주보스턴총영사관

주소 : 300 Washington Street, Suite 251, Newton, MA 02458  
 Fax, 1-617-641-2831 E-Mail: [kcgpboston@mofa.go.kr](mailto:kcgpboston@mofa.go.kr) 홈페이지 : <http://usa-boston.mofa.go.kr>

## 보청기가 필요 하십니까?

Dr. 문소라 (Alysia Moon, Au.D CCC-A)

# hear here.

- board-certified audiologists
- all major hearing aid brands
- 30-day trial period
- up to 4-year warranty

proud carrier of

### ASSISTIVE LISTENING DEVICES

Now Available • Call for Details

### Moon Hearing Services

23 Warren Avenue, Suite 130 • Woburn  
 (located in the Choate Medical Center)  
**Call (781) 573-EARS (3277)**

[www.moonhearing.com](http://www.moonhearing.com)



## 소중히 여김이 옳지 않겠나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피곤했지, 필겨야. 헌데, 피고 말았다. 와글와글 피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고, 뜸들이고 말고도 없었다. 한창 춤다가 날이 풀리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소냐. 노란 꽃잎들이 덜컥덜컥 소리내고 떴어 터져나왔다. 내가 이럴줄 진작에 알았다. 개나리가 피었다.

개나리는 왜 개나리인가. 개나리가 나리보다 못한 꽃이라해서 그런건가. 개나리가 나리보다 못하다고 누가 불평하던가. 나리가 청초하다면, 개나리는 따뜻하지 않은가. 개나리를 삼

류꽃이라 할수는 없는데. 개나리가 한심한 꽃은 아니다.

꽃이 터지기 시작한 지난 두어주 동안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있다. 슬픔, 절망, 분노, 충격, 경악, 그리고 노여움. 그럴수 밖에 없다. 우린 요즈음 가슴아팠고, 슬펐으며, 분하고 노여워했다. 놀라고, 충격을 받아 숨도 제대로 고를수 없었다. 삶이 우리를 정녕 속이고 있는건가. 모든것이 아무 일도 없었는듯 그냥 지나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푸쉬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중에서)

제가 나온 학교는 모교라 부른다. 어머니 학교라는 말이다. 제 신앙을 키운 교회는 어머니 교회다. 제가 태어난 나라를 모국이라 부른다. 어머니. 얼마나 포근한 말인가.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운 단어인가. 등에 얹혀있을 적 귀를 등에 대면 들리던 어머니 목소리를 기억하는가. 그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울림일게다. 퍼지듯 낮은 어머니 목소리는 그리움이다.

못난 어머니는 없다. 한심한 어머니는 이세상에 더욱 없다. 그러니 어머니를 한심하다고 대놓고 말한다면, 망발이고 패륜이다. 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판나라기자들이 썼다면 차라리 덜 서운할게다. 일본기자인가? 중국기자인가? 아니면 미국기자인가? 아니 한국 기자가 쓴 철없는 글 타이틀이다. 난 기사내용보다 제목이 더한 충격이었다.

‘한심한 대한민국’ ‘삼류국가’ ‘삼등국가.’

제 어머니 나라를 한심하단다. 저를 낳아 키운 어미를 삼류라 했고, 삼등이라단다. 건성 눈으로만 훑어도, 마음이 편치 않다. 하긴, 읽어 봐야 중언부언에 그 소리가 그 소리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누가 초라하다 손가락질 해도, 누가 삼등이라 해도, 누가 삼류라 해도 제 어머니나라 아니겠는가. 더 없이 귀한 조국이고 모국이란 말이다. 그런 조국, 소중히 여김이 옳지 않겠나. 그런 어머니 소중히 여김이 옳지 않겠나. 어머니 날이다. 카네이션을 달아야 하는데, 올해엔 차라리 개나리를 달까.

당신이 내 소중한 어머니입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이사야서 43:4, 현대인의 성경)

# 영어를 배우세요!

전 세계 70 여개국 수백명의 학생들이 거쳐간 CSI 의 ESL 아카데미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 아카데미 영어 프로그램

ESL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인텐시브 영어와 아카데미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와 언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와 실험, 견학과 다양한 사회적 행사 참여를 통해 언어와 미국문화를 함께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전문적, 학문적,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화적 지식과 언어능력을 제공합니다.

ESL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

- J-1 비자를 포함한 F-1 비자로 변경
- 다른 학교로 이전 도와줌
- 해외에서 학생비자 취득 안내
- 공식적인 여름방학
- 여러 일정의 수업
- 기초영어부터 어드밴스 아카데미 영어까지 다양한 레벨



COMPUTER  
SYSTEMS  
INSTITUTE



지금 전화주세요!

888-886-5740

esl.csinow.edu

Charlestown, MA • Worcester, MA  
Chicago, IL • Skokie, IL • Lombard, IL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 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3/17/14.

1년 학비 \$3,600!!

	<p>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p>	
<p><b>스티븐 김 변호사</b>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p> <p><b>617.879.9979</b> stevenkimlaw.com</p>	<p><b>류 영욱</b> Young Uk Lew NMLS#164694</p> <p>Cell: 617.777.2929 Fax: 617.284.6196 ylew@indmortgage.com</p>	
<p><b>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b>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p>		 <p><i>Boutique broker for individualized residential &amp; commercial loans</i></p> <p>경험과 신뢰를 자랑하는 보스톤의 모기지 박사 we arrange but do not make loans.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Licensed by the Division of Bank and Loan Agencies, NMLS #641207</p>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PRESENTS

# 2014 SPRING CONCERT

JOO-MEE LEE, VIOLIN | JAMES BUSWELL, VIOLIN AND VIOLA  
SAM OU, CELLO | JAYOUNG KIM, PIANO

WORKS BY  
MOZART, TCHAIKOVSKY, PROKOFIEV AND SCHUMANN







SUNDAY, JUNE 1 AT 3:30 PM  
ST. PAUL'S EPISCOPAL CHURCH  
15 ST. PAUL STREET,  
BROOKLINE, MA

ADMISSION:  
GENERAL \$10  
STUDENT (WITH ID) FREE  
MORE INFO AT KCSBOSTON.ORG OR  
CALL 617) 939-3477

## 작품 공모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제 2회 협회전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작가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스톤한미예술협회(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에서 2014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사추세츠 주 렉싱턴 소재 렉싱턴 아트그래프트센터에서 제2회 공모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응모작은 보스톤 미술관 (MFA, Museum of Fine Arts Boston)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 미술부장인 제인 포탈이 심사합니다.  
출품을 원하시는 분은 7월 20일까지 www.kcsBoston.org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20과 함께 응모해주시요.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레드삭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존 패럴 감독과 벤 채링턴 단장

## 레드삭스가 부진한 3가지 이유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레드삭스가 4월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4월 29일 기준으로 레드삭스는 12승 14패, 아메리칸 리그 최하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해 있다.

물론 가을까지 이어지는 장기 레이스에서 4월 성적만으로 시즌 전체를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레드삭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즌 초반 드러난 레드삭스의 가장 큰 문제점 몇 가지를 짚어보자.

### 파워의 부재

레드삭스의 중심 타선인 데이빗 오티즈와 마이크 나폴리가 간신히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라인업에 파워가 부족한 상황이다. 작년 시즌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파워가 부족한 모습은 포수를 맡고 있는 에이제이 피어린스키와 유격수 잭터 보거츠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피어린스키는 3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 방이 있는 공격적인 면 때문에 레드삭스에 합류했다. 피어린스키는 13번의 MLB 시즌 동안 두 자릿수 이상 홈런을 기록한 적이 9번 있었다.

특히 한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것은 폴타임 메이저 리거로 활약한 첫 시즌 뿐이었다.

올해 레드삭스에 합류할 때 피어린스키의 통산 장타율은 .428이었다. 그러나 레드삭스 유니폼을 입은 올해 피어린스키의 장타율은 .377에 불과하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 홈런과 2루타를 친 덕분에 그나마 .377까지 올라갔으며, 그 전에는 .355를 기록하고 있었다.

21세의 신예 유격수 보거츠의 경우도 피어린스키와 비슷하다. 보거츠에

게 30홈런 이상을 주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3할대에 머물고 있는 보거츠의 장타율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이너리그에서 보거츠의 장타율은 .489였다.

지난해 정규시즌 18경기에서 보거츠의 장타율은 .364에 불과했지만, 포스트시즌 12경기에서는 장타율이 .481까지 올라갔다.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숫자로 보여지는 변화가 크게 느껴진다.

보거츠나 피어린스키 모두 아직 경기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리고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던 3루수 윌 미들브룩스가 복귀하면 레드삭스의 타선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미들브룩스의 통산 장타율은 .469이다.

### 수비 불안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올해 레드삭스의 수비는 형편없어 보인다. 2013년에는 제커비 엘스버리가 중견수를, 웨인 빅토리아가 우익수를 맡으며 플라이볼을 놓치지 않았다. 스티브 드류는 안정적인 유격수였고, 마이크 나폴리는 1루수 골든 글러브 후보였다.

1년이 지난 후에 레드삭스의 수비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거츠는 기록상으로 메이저리그 최악의 유격

수 중 한 명이다. 작년 시즌 골든 글러브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던 나폴리는 올해 그저 평범한 수준의 수비를 펼치고 있다.

시즌 초반 레드삭스의 수비에서 그 래디 시즈모어를 빼놓을 수 없다. 한때 수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시즈모어지만 나이와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중견수를 맡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즈모어는 좌익수로 보직이 변경되고, 대신에 중견수는 재키 브래들리 주니어가 맡게 된다. 시즈모어의 불안한 수비는 퀘웨이 파크의 그린 몬스터 덕에 어느 정도 희석이 될 수도 있다.

### 투수 부진

레드삭스 선발 투수들의 부진 역시 팀 성적 하락의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존 레스터는 그나마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지만 클레이 벅홀츠와 펠릭스 두브론트의 부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벅홀츠는 지난 시즌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싸이영상을 받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방어율 6.66을 기록하고 있는 벅홀츠는 리그에서 가장 부진한 선발 투수 중 한 명이다.

두브론트 역시 6점대의 방어율로 시즌을 시작하고 있다. 두브론트는 지난 시즌에도 일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했지만, 때때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jsi@bostonkorea.com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33 최초의 무에서 '무예제보(武藝諸譜)'와 프랑스(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에서인 무예제보가 1598년에 간행되어 조선의 장졸들을 훈련시키는데 좋은 교본이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영조대에서 12종을 추가하여 무예신보, 정조대에서 또 6종을 추가하여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였다. 이렇게 귀중한 서적이 사라졌다. 현재도 우리나라에 없다. 1866년(고종3년)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지역으로 침범하였다. 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52) 구실로 일으킨 제국주의적인 전쟁이다. 1866년 음력9월18일에서 11월11일까지 약7주간의 전쟁이다. 이 전쟁을 역사에서는 '병인양요'라고 칭한다.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한 후 도성으로 진격하려고 온갖 전술을 다 구사하였지만 조선군의 방어와 대항전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군을 물리친 자신감에 찬 대원군으로 하여금 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고 모든 수교와 통상을 거부하는 쇄국정책으로 치달게 하였고, 나폴레옹3세 치하의 프랑스 군대는 제국의 위신을 여지없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추락시켰다. 하지만 그들이 철수하면서 강화

성 안에 있던 수 많은 우리나라의 보물들을 약탈했다. 그 중에는 은케19상자와 그 은케보다도 더 귀중한 외규장각의 많은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서적들 가운데는 '무예제보'도 있었다. 그들이 가져간 서적과 보물들은 아직도 돌아 오지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되어서 구천九夭을 헤메고 있다. 우리는 국력을 더욱 배양하여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반드시 되찾아 와서 제자리에 놓아야만 하겠다. 그래야만 우리의 선조들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를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떳떳히 물려줄 수 있으리라...

우리는 120여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상대적으로 별로 귀중하지도 않은 고작 몇권의 서적과 마이크로필름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 무예제보는 단 한권이 전하며 이것은 애석하게도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1982년 한불韓佛협정에 의하여 많은 서적들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재생되어 우리나라로 올때 다행스럽게도 무예제보의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

을 몰랐다. 1993년 이 마이크로필름의 존재가 확인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무예제보가 프랑스에 있었는지도 몰랐다. 영원히 사라져 버린 책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마이크로필름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양된 후에도 무예제보의 필름은 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아마도 그 필름에는 출처가 '1982년 프랑스 동양어학교'라고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본다. 원본이 아니고 비록 마이크로필름이지만 무예를 연구하고 수련하는 참 무도인들의 '근성(根誠)'에 의해 '발견(發見) 아닌 발견(發見)'으로 재발견되었다. 박기동(강원대 스포츠과학부 교수)은 어느날 지인인 동방무술 유습권 도장의 종주인 이민영으로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무예제보'의 마이크로필름이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는 1993년9월11일 그 도서관 비도서 자료실을 찾아가서 그 존재를 확인하였다. 역사서 속에서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의 모체로만 전해졌던 무예제보의 발견은 전통무예를 연구하고 수련하는 특정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과

국민들에게도 감격스러운 '발견'이었다. 그는 1994년 논문을 통해 이 사실을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했으며, 이 논문으로 인하여 학계와 무술계는 발각 뒤집혔다. 결국 우리나라의 무예사를 다시 써야만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현존최고(現存最古)의 무예서는 무예도보통지였는데 무예제보가 그 영예의 자리를 탈환하였다. 꿈에서나 그리고 다른 역사서 속에서 책명만 전해오던 400년이 넘는 책이 존재한다는 감격을 어떻게 19상자의 은케에 비하랴... 아직도 아쉬운 점은 그 원본이 우리나라가 아닌 프랑스에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우리 민족의 유산인 귀중한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아닌가 싶다.

52) 이 사건을 '병인박해'라고 한다. 1831년 교황청이 조선을 독립교구로 선정하였다. 신부들이 와서 몰락한 양반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전파했다. 하지만 기독교의 양반들은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가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여 천주교를 금지시켰다. 기해박해(1839년)때도 프랑스인 신부 3명이 처형되었다. 하지만 교세는 은밀히 확장되었다. 원래 대원군은 기독교를 이용해 제정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했지만 청나라의 정세가 변하면서(영국과 프랑스군의 북경 점령) 기독교를 탄압하였다. 그리고 대원군도 기독교나 신부들이 정치적 이용 가치 없다고 판단되어 1866년(고종3년 - 병인년)에 천주교 탄압교령을 포고하였고, 프랑스 선교사 12명중 9명과 국내 신도들의 순교자만 2천여명이 처형된 사건이 병인박해이다. 그리고 피신하여 병고와 굶주림으로 죽은 신도들을 다하면 8천여명이 넘는 숫자이다. 살아남은 선교사가 청나라로 가서 천진 주재 함대 사령관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결국 그 해 11월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빌미로 침략하였는데 그들의 진짜 이유는 베트남에서 한것처럼 식민지화가 주목적이었다.

# Mu Han

TOTAL MARTIAL ARTS, INC.

무한무도회



“ To be the best of the best...”



## ART SKILLS

- World Taekwondo Federation
- Korea Professional Taekwondo Federation
- Korea Jing Wu Kung Fu Association
- Korea Kyeok Too Ki Association
- Korea Hapkido Association

## LOCATIONS

### Attleboro Mu Han Total Martial Arts

23 N.main St. Attleboro MA 02703  
Ph) 508-226-0707, 508-226-0808

### Franklin Mu Han Total Martial Arts

456 W.Central St. Franklin MA 02038  
Ph)508-528-7772, Fax) 508-528-7797

### Taunton Mu Han Total Martial Arts

147 Broadway Ave. Rte 138. Taunton MA 02780  
Ph) 508-880-9200



TUSA Cup 2013



### Grand Master Kang

- 2011 – Pan-America Kukkiwon Grandmasters' Federation Executive Office
- 2010 – Korea Taekwondo Association(KTA)in USA, Secretary General
- 2007 – KTAin USA, Northeastern Regional Vice President
- 2006 – NEKTA (New England Korea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6-2011 – Korean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Referee Chairman
- 2009 – Mu Han Martial Arts Director of Discipline
- 2008 – Hanmdang, International Referee (Kukkiwon, World TKD Academy)
- 2008 – TKD Hanmadang, Ambassador in U.S.A.
- 2007 – Greater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7 – N.E.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6 – TaeKwonDo 7th Degree Black belt (Kukkiwon)
- 2005 - U.S.T.L.U. New Hampshire State President
- 2004 – State of Georgia, Deputy Marshal
- 2004 – U.S.T.W New Hampshire State President
- 2003 – World Taekwondo Federation International Referee
- 2003 – USTU Referee of the Year
- 2002 – Featured Cover Story, Taekwondo Times Magazine
- 2001 – Korean Sports Council in USA, Taekwondo Team Director, Boston
- 1999 – Korean Sports Council in USA, Taekwondo Team Head Coach, New England
- 1991 – Kyuk Too Ki (Korean kick boxing) Master Certified
- 1991 – Kyuk Too Ki (Korean kick boxing) International Referee
- 1993 – Minister of Physical Education, Kyuk Too Ki Instructor's License
- 1990 – Director, Minister of Physical Education, Taekwondo Instructor's License
- 1989 – Master Instructor Certified by Kukkiwon

### Master Oh

- 2002 Founded Mu Han Total Martial Arts
- 1999 Demonstrated in Canada and US
- 1998 1st International Team Pro Taekwondo in Korea
- 1997 Head Instructor in Pro Taekwondo Federation in Korea
- 1997 Taught Special Force 707 & Korea West Point
- 1992 1st Place -75kg Wu Shu Sparring Division in Seoul, Korea
- 1st Place Wu Shu Southern First Division in Seoul, Korea
- 1st Place Wu Shu Spear Division in Seoul, Korea
- 8th Degree Black Belt in Korean Professional Taekwondo
- 6th Degree Black Belt in Jeong Mu Kung-Fu
-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International Office Chairman

### Master Lee

- 2009 Mu Han Martial Arts Instructor
- 20 Years teaching experienced
- Taekwondo 5th Degree Black Belt(Kukkiwon)
- Demonstration in Europe
- Teacher Certification in Korea
- Certification for Convoy

Facebook <https://www.facebook.com/MuHanMartialArts?rf=115870451838012>  
U tube <https://www.youtube.com/user/MHtotalmartialarts>  
Web site [www.muhanmartialarts.com](http://www.muhanmartialarts.com) / [www.franklinmartialart.com](http://www.franklinmartialart.com)

공식협력업체 :

**보스톤 정관장**  
대한민국 흥삼의 힘!  
문의 전화 781-238-0303

**NEWSTAR Realty of Boston**  
Vice President Kwang O Kim / 김광오  
Direct: 617-792-8615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0. No.18 May 2 2014

발행처 : The Boston Korea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38

맞춤 주문 케이크 전문 베이커리

특별한 날에 걸맞은 "이야기가 있는 케이크"

김 케이크디자인 (Kim Cake Design)

www.kimcakedesign.com  
617-842-7977  
kimcakedesign@gmail.com

선 가든 힐링센터

지 압 침 기치료

617.953.4988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 형 략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 기쁘다” 는 김가영 케이크 디자이너. 그녀의 이력은 사뭇 남다르다. 국내 우수 남성 패션 잡지에서 패션 에디터를 지내다 도미, 뒤늦게 빵과 과자, 케이크 만들기 기에 흥미를 느껴 요리 학교 ‘르 꼬르동 블루’의 ‘제과 제빵 (Patisserie & Baking)’ 과정을 최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후 프렌치 레스토랑 ‘레스팔리에(L’ espalier)’의 인턴을 거쳐 미국 내 3대 베이커리로 꼽히는 ‘플라워(Flour Bakery & Café) 베이커리’의 정식 베이커로 일하고 있다. 미국 내 식품 안전 조리 자격증이라 할 수 있는 ‘ServeSafe’까지 취득한터라 위생 상태까지 꼼꼼히 살핀다고.

“행사의 성격이나 주인공에 맞춘 케이크를 통해 특별한 순간을 더욱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겨 드리겠다” 는 기치 아래 이 일을 하고 있는 ‘김 케이크 디자인 (Kim Cake Design, 디자이너 김가영)’은 푸드 채널 (Food Channel)에서나 봤을 직한, 아름다운 케이크를 구워내고 있다.

먹기엔 도무지 아까운, 동화속 한 장면을 옮겨다 놓은 듯한 케이크를 주문 제작하는 이곳, 파티의 주인공을 속 빼닮은 미니 모형, 주인공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신부 드레스의 디테일 등을 똑같은 장식을 넣어 어떠한 행사라도 빛내 준다.

“아는 분이 적극 칭찬해 찾아 왔다는 고객들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전화나 이메일 (kimcakedesign@gmail.com)을 통한 문의는 필수다.

‘김 케이크 디자인’에서 케이크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행사 2주 전에 예약 및 상담을 해야 한다. 고객 개인의 취향과 이벤트의 성격, 입맛에 따라 맞춤 제작되는 케이크인 만큼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다.

고객들은 케이크 주문에 앞서 김 디자이너와 상담을 통해 원하는 케이크의 디자인과 크기, 맛을 결정할 수 있다. 이후 김 디자이너는 디자인한 케이크의 스케치를 고객에게 보내 동의를 얻고 작업을 시작한다. 케이크의 가격은 사이즈와 디자인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전화나 이메일 (kimcakedesign@gmail.com)을 통한 문의는 필수다.

‘김 케이크 디자인’에서는 케이크 외에 다양한 디저트 케이터링 주문도 받고 있다. 아이들 생일 파티상에 놓일 갖가지 형태의 ‘수제 쿠키’나 결혼식 손님 답례품으로 좋을 웨딩 케이크의 미니 버전 ‘컵케이크’, 개별 포장 가능한 막대사탕 형태의 ‘케이크 팝스’ 등 아기자기한 먹거리도 맞춤형으로 주문 제작한다. hckim@bostonkorea.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Seafood Distr. Sales Rep (Boston/region)**

True World Foods supplies fresh and frozen seafood to sushi restaurants. Sushi experience, able to speak Asian language(s) preferred. Fax resume to 617-269-8342 or email through this ad. D.Stadelhofer <david-st@trueworldfoods.com>

야수  
웨이터, 웨이츄레스 구함  
T. 617-738-2244

**N[매 매]**  
미용실 매매.  
거의 2000sq.ft.에 달하는 넓은 실내. 4년동안 꾸준한 단골고객 확보로 안정적 수익. 안전하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지역. 내쉬빌 테네시 지역. 전화문의 주시면 실내 사진과 웹사이트 주소 알려 드리겠습니다.  
T. 931-624-1855

**N 드랍 앤 테일러 샵 매매**  
처음 비즈니스를 도전하시는 분에게 적합하고 부담없는 장소 (MA) 모든 시설 브랜 뉴 풍부한 파킹랏, 저렴한 렌트  
T. 978-761-0897

**뉴튼 네일살롱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초보자.기술자.중간 기술자.환영”  
“자격증 소지 하신분.또는 취득 가능 하신분”

{저희 가게는 뉴튼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일 살롱중 가장 단골고객을 많이 보유하고있는 6년차 가게 입니다.  
주 7일간 오픈하며 풀타임에 한해선 (휴가. 및 공휴일) 페이도해드립니다.(파트타임.토 일 하실분 환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617-678-4780/ 617-559-9953

**We Buy Car**

We buy used cars for top money even though they have high mil-iages and problems. Please call Sam at 508-725-8888. Speak English.  
T: 508-725-888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N[매 매] 가게 - 1**  
그린빌 사우스 케롤라이나에 위치한 2개의 핸드폰 가게를 매매 합니다. 가게 1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트레이닝 가능. 매상 월 \$14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1000  
T. 864-505-5784 (Kim)

**N[매 매]**  
애틀란타,조지아 지역(좋은장소,좋은비지니스,좋은가격)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품점입니다. 주인 은퇴관계로 식품점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그로서리를 인수하실 경우 1개월 동안 경영하는 모든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70-933-8808, 770-933-0848

**주방 쿡/주방보조 구함**

주방 쿡(중식경험자)/주방 보조(초보가능) 풀, 파트 타임 구합니다 (603)889.0055 (문의 3시 이후)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매 매] 가게 - 2**  
가게 2.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 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매상 월 \$13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500 새주인에게 verizon,sprint,metro,cricket의 LTE 전화기를 pageplus 로 플래싱 하는 기술도 같이 전수해 드립니다.  
T. 864-505-5784 (Kim)

**N[매 매]**  
- 뷰티 서플라이 가게 매매.  
- 지난23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성공중인 비전있는 비즈니스.  
- 많은 단골고객 확보 및 시장형성.  
- 아주 좋은 로케이션.  
- Sunday closed/평일7:30Pm closed.  
- 약간의 오픈 파이넌싱 가능.  
T. 678-457-8054

테일러샵 매매 (Hampshire 지역)  
웃수선 전문, 텍시도 렌트, 주인 은퇴  
T. 413-320-6284

**N[매 매]**  
일식당 매매, 플로리다 지역. 더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 www.rr4sale.com  
T. 321-806-8922

**서울설령탕 주류판매개시!**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파전,족발,보쌈,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령탕**

**1245 Commonwealth Avenue, Allston**  
**617-505-6771**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남새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술/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기(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연구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상담협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폴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운수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백산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중앙대학교동창회	978-390-1552
강원도민회	603-622-8883
충청향우회	617-875-1801
한양대동문회	678-717-8800
	508-455-149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가톨릭	
구세군 몰몬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몬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351-2347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978-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누리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프린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 건축

클로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영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 금융/투자

인덱펀던트(모형) (유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라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공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스킨케어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티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788-7675
프루페셔널헤어디자이너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 물상대여

해피물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길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디안정신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주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부스	617-871-1482
퀸지치과	617-471-2184
퍼스트치스덴탈그룹	617-273-2233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리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상충협치침플랜트	781-89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국세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고영복(메트라이프)보험	978-646-3042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4년 4월 21일 ~ 4월 27일



**1위**  
KBS1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  
26.9%



**2위** KBS2 주말연속극 참 좋은 시절 26.1%



**3위** MBC 월화특별기획 기황후 24.7%

- 4 KBS1 KBS9시뉴스 19.3%
- 5 KBS2 일일드라마(천상여자) 18.4%
- 6 KBS1 대하드라마(정도전) 17.9%
- 7 KBS1 인간극장 12.4%
- 8 SBS 아침연속극(나만의당신) 11.9%
- 9 MBC 주말드라마(왔다장보리) 11.9%
- 10 SBS SBS뉴스속보 11.7%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24.99에 볼 수 있는 안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200% 악동뮤지션
- 02 봄 사랑 벚꽃 말고 HIGH4,아이유
- 03 Mr.Chu(On Stage) Apink
- 04 야생화 박효신
- 05 인연 윤민수,신용재
- 06 티가 나봐 15&
- 07 씬 소유
- 08 Give Love 악동뮤지션
- 09 견딜만해 매드클라운
- 10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선희

##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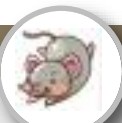
8				9	6		
	7		8	3		2	
		2			7		
	8	9	7				2
	1	4			9	3	
5				6	4	7	
		8			2		
	4		9	2		6	
		5	6				1

5월 4일 - 5월 10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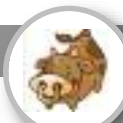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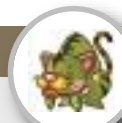
### 쥐띠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 운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주입니다. ● 금전: 분수에 맞지 않은 일을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어려우면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애정: 마음이란 붙잡으려 할수록 자꾸 멀어지는 법입니다. 한 생각 돌이켜서 상대가 어떻게 하든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6, 9일 길일, 8, 1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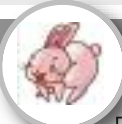
### 소띠 |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 운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동료와 조화를 이뤄서 큰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 금전: 확실하게 하던 일만 그대로 진행시키도록 하세요. 금전 운은 좋아질 것입니다. ● 애정: 실질적으로 마음의 동요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더 폭넓게 상대를 대하면 서로가 편해지고 가까워질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5, 10일 길일, 6, 9일 주의.



### 범띠 |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 운수: 발 벗고 따라가야 합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주고 있으니 금전적인 면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총동적인 결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애정: 이성간에 변화가 생기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판단하여 원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86, 74, 62, 50, 38년생은 8, 9일 길일, 4, 10일 주의.



### 토끼띠 | 자신도 모르게 되풀이하기 쉬운

● 운수: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해롭기만 한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되풀이하기 쉬운 주입니다. ● 금전: 남에게 도움만 주었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훗날에 가서 두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 애정: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4, 7일 길일, 5, 1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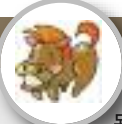
### 용띠 | 옹그 그림이 가려지게 되는

● 운수: 구태여 자기주장을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절로 옹그 그림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 금전: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를 만났다고 하겠습니까. 문서로 인한 이익이 기대되고 황재수도 있었습니다. ● 애정: 우선 머리를 식힌 후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5, 7일 길일, 4, 6일 주의.



### 뱀띠 |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 운수: 남들이 하지 않는 신선한 아이디어로 일을 새롭게 시작하면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평소보다는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직장인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 애정: 쉽게 마음을 주지 않던 사람도 드디어 짝을 만나게 되어 자신도 기억할 수 없는 힘들림에 따라가게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6, 9일 길일, 4, 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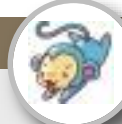
### 말띠 | 꺼져가는 불씨에 다시 불이 붙는

● 운수: 꺼져가는 불씨에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니 계획된 일들이 순조로이 진행될 것입니다. ● 금전: 재물도 따라주고 성취욕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연결되는 좋은 조건의 일도 생기게 됩니다. ● 애정: 세상사람 모두 용서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바보 같은 짓이라 해도 한번쯤은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때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7, 10일 길일, 5, 8일 주의.



### 양띠 | 어깨를 펴고 자신감을 갖도록

● 운수: 어깨를 펴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세요. 재도전하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 금전: 어느 때보다도 주관을 확고히 가지고 흔들림 없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순간의 판단이 이익과 손해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애정: 혼자 지내왔던 상대라면 이상형의 상대를 만나서 아끼지 않는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4, 8일 길일, 5, 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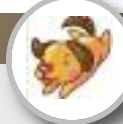
### 원숭이띠 | 영양섭취에 신경을 쓰고

● 운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기력이 모두 떨어질 시기입니다. 영양섭취에 신경을 쓰고 휴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이익과 계산이 너무 앞서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 애정: 어떤 말로 마음이 상할 때 그것을 계속 곱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떻게 들려서 마음이 상하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5, 9일 길일, 7, 10일 주의.



### 닭띠 | 마음을 넓게 가지고 눈높이를 낮춰

● 운수: 마음을 넓게 가지고 눈높이를 낮춰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 금전: 수입이 늘어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세일즈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평소보다 나은 실적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서로가 서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6, 9일 길일, 5, 8일 주의.



### 개띠 | 계속 엇갈리는 때문에

● 운수: 말을 잘하면 천 냥 빛도 값을 수 있지만 말을 잘못하면 잘못된 일도 망칠 수도 있지요. 남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어려우니 고민이 많습니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 보도록 하세요. ● 애정: 계속 엇갈리는 때문에 전화 통화도 만남도 힘이 드는군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뿐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7, 8일 길일, 6, 9일 주의.



### 돼지띠 |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클 때

● 운수: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눈치 채기도 어려워 자기 가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함정에 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클 것입니다. 절약하는 길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애정: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화가 오고갈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5, 8일 길일, 7, 10일 주의.



# '골든크로스' 김강우 한 맷힌 절규에 시청률 수직상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골든크로스'의 시청률이 수직상승했다. 1일 시청률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4월 30일 방송된 KBS2 수목드라마 '골든크로스'는 전국기준 6.6%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방송분보다 1.5% 상승한 수치다.

이날 방송에서는 아버지 강주완(이대연 분)의 무죄를 깨달은 강도윤(김강우 분)이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아버지를 부당 해고한 한민은행을 찾아가 "지금 당장 횡령사실 전모를 문서로 작성해 주십시오" "상무님이 선처할 일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라며 항변했다. 한민은행의 주민호(이승형) 상무는 "살인자 새끼 주제에 어디 와서 협박이야?"라며 강도윤을 떨시켰다. 이에 강도윤은 거침없이 주먹을 날리며 "살인자 새끼? 살인자? 우리 아버지 발아래 무릎 꿇고 용설 빌게 만들 테니까 두고 봐"라고 말하며 타오르는 복수심을 드러냈다. 강도윤은 또한 흥공행 비행기에 탑승한 강하윤(서민지 분)과 서동하(정보석 분)의 사진을



입수했다. 그는 담당 검사 서이레(이시영 분)에게 "이놈이 범인입니다. 이놈이 내 동생을 죽인 범인이라고요"라고 울부짖으며 절규했다. 이날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골든 크로스, 스트레스 풀려요" "김강우 눈빛 연기 정말 좋습니다" "드라마인지 실화인지 헷갈리네" "역시 명불허전 김강우와 정보석의 소름 끼치는 연기" 등 호평을 이어갔다. s.yang@bostonkorea.com



## 전현무, 씨스타 들린 번호에 울컥

타'에 출연, 소유가 "데뷔 초 전현무 씨가 저에게 사적으로 번호를 받았다"고 폭로하자 "번호가 바뀌었는데 말을 안 해준다"고 말해 웃음을 줬다.

전현무는 "제가 전화를 하지도 않고, 고기를 사준다고 해도 답이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며 "그런데 번호가 바뀌었으면서 얘기를 안 해준다. 씨스타네 명 다 지금 들린 번호를 갖고 있다"고 울컥했다.

이에 소유는 당황하며 "몰라요"라고 말하다가 "기억이 안 났나 봐요"라고 말해 다시 한 번 웃음을 줬다.

전현무는 "소유의 번호가 바뀐 것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확인했다"며 "소유 사진에서 갑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 아줌마 사진으로 바뀌었기에 '시트콤을 찍었나' 했는데 정말 그 아줌마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며 서운해 했다.

함께 출연한 서장훈은 "보통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인간관계 정리하지 않나"며 능청스럽게 전현무를 놀려 웃음을 안겼다. s.yang@bostonkorea.com

## 천상지희 출신 스테파니 데뷔 9주년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걸그룹 천상지희로 활동했던 스테파니가 데뷔 9주년을 맞아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직접 전했다.

1일 오전 스테파니는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천상지희 더그 9주년! 항상 서포트해주는 사블리 그리고 응원해주는 팬분들이 있기에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고 앞으로도 화이팅하겠습니다. 오는 7월에 만나요. 하고싶은 노래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테파니는 마피아레코드와의 제휴를 통해 '솔로' 컴백을 준비 중이다. 오는 7월에 솔로 가수로 컴백할 예정. 1987년생인 스테파니는 2005년 천상지희 멤버로 데뷔했다. 현재 한국 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에 재학 중이며 요즘 매일 저녁 8시 아리랑 라디오 '사운드K' DJ로 활동 중이다. s.yang@bostonkorea.com

##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 로컬, 장거리 이사 전문

시카고, 아틀란타, 버지니아  
- Next Day Delivery (Express)  
TX 지역  
- Two day Delivery (Express)  
L.A, 샌프란시스코 (CA지역)  
- 5 Days Delivery (Express)



우리 익스프레스 617.699.6272

## 김원태 건축사

Reg.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 REALTOR®  
DeCon Group  
Design • Construction • Management

##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독일에서 성장하고 교육 받음  
무료 상담 및 견적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대우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의 파출실적 / 1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206-734-1407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송경빈**  
978-844-1508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3400 sf.  
살기 좋은 타운  
넓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  
이현주 401-935-3397



\$57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64 sf.  
넓은 키친, 잘 관리된 정원  
Nice house to live and work  
이현주 401-935-3397



\$539,000  
**Reading, MA**  
3 Beds, 2 Baths, 2366 sf.  
새로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Easy access to Highway  
Jason Jeon 617-642-5670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좋은 학군, 햇빛 좋은 남향집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단독주택 Single Family**



\$195,000  
**Weymouth, MA**  
3 Beds, 1 Baths, 1180 sf.  
Beautiful ocean view  
Jin Choi 617-877-0387



\$7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559,000  
**Winchester, MA**  
4 Beds, 2 Baths, 1969 sf.  
주택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에게  
적합한 집  
OT Kim 617-620-8242



\$899,900  
**Lexington, MA**  
4 Beds, 3 Baths, 2534 sf.  
넓은 공간,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bathrooms  
OT Kim 617-620-8242

**콘도 Condominium**



\$319,900  
**Northborough, MA**  
2 Beds, 2 Baths, 1640 sf.  
좋은 가격의 고급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850,000  
**Cambridge, MA**  
2 Beds, 2.5 Baths, 1374 sf.  
깨끗하고 좋은 구조의 콘도  
Joanne Song 617-797-3562



\$480,000  
**Quincy, MA**  
3 Beds, 2.5 Baths, 2448 sf.  
조용하고 깨끗한 콘도  
Jason Jeon 617-642-5670



\$789,000  
**Boston, MA**  
2 Beds, 2 Baths  
Luxury elevator condo  
Sue Rong Tsai 617-792-8842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Cleaner**  
\$220,000  
Milford, 건물 가능  
주차공간, 사무실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부동산 협회 (NAR) / 2014년 4월 / 100대 부동산 에이전트 /  
2014년 4월 15일 기준 / 2014년 4월 15일 기준 / 2014년 4월 15일 기준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 Drop off Store



**\$65,000**  
**Lincoln, MA**  
Drop shop and alteration  
Great location by Lincoln place  
Anna Jung 617-780-1675

### Restaurant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 Cart Business in Mall



**\$80,000**  
**Boston, MA**  
Downtown Mall 안에 위치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 Drop off Store



**\$50,000**  
**Wakefield, MA**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 Full Plant 세탁소



**\$300,000**  
**West Boylston, MA**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 Drop off Store



**\$60,000**  
**Concord, MA**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 Clothing Store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 Nail Sa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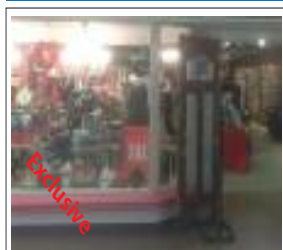
**\$89,900**  
**Boston, MA**  
Well established nail salon  
located in a high traffic area  
Hazel Seung 617-895-7676

###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 Jewelry Business



**\$99,999**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 E-2 투자 이민

**E-2 투자 이민**  
**확실한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 복된 만남

김용환 목사  
(북부보스톤교회)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만나는 사람은 수 없이 많다. 그 많은 만남 가운데서 어떤 만남은 한번 스쳐 가는 듯한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일생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 와서 산지도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으니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숫자도 적지 않다. 그 많은 만남 중에서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추억이 보물처럼 여겨지는 만남도 있다. 나에게도 그런 만남들이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뉴잉글랜드에 와서도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었으니 하늘이 준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아름다운 만남이 며칠 전에 갑자기 중단되었다.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도 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른다. 자식을 잃은 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와 비슷한 아픔과 슬픔이 몰려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복된 만남을 혼자 조용히 간직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내가 만난 분과 같은 만남을 복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필자가 만남을 복되게 생각하는 분은 지난 토요일 세상을 떠난 섬기는 교회 박석만 장로시다. 어떤 분들은 이분을 “오뚜기” 라고 부

른다. 오뚜기처럼 쓰러 졌다가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기 때문이다. “No Problem” 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가서 상의하면 “no problem” 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자주 사용하는 말썬은 “그거 괜찮아요” 이다. 나는 “뉴잉글랜드에서 만난 천사” 라고 부르고 싶다. 지난 40여 년간 이 지역에 살면서 이 분이 천사라고 느낀 분들이 많을 것이다.

박 장로께서는 한국사람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니었다. 국적이나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공장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친절하고도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른 공장에 가서 수리하면 일주일 혹은 이주일 이 걸리는데 며칠 만에 수리해주고 가격까지 저렴하니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특히 목회자 가족에게는 재료비에 해당되는 금액 정도만 받았다고 하니 이분의 넉넉함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먼 지역에서 사는 분들도 이 분이 운영하는 바디샵을 찾곤 했다.

어디서 이런 섬김의 정신을 배웠을까? 타고 날 때부터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을까? 아니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사는 방식이 달라진 것일까? 아마 두 가지 모두가 그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도록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분의 긍정적 사고는 교회에 다니기 시

작하면서부터 더욱 발전되었을 것이다. 이분의 이런 삶의 태도가 필자가 처음 부임했을 때 많은 격려가 되었다. 박장로께서는 필자를 만날 때마다 부임 후 3년은 시끄러운 법이고 전임 목회자들은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분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섰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셨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다. 80이 넘었으면서도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뜨거운 열정은 어디서 오나? Stroke 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일하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셨던 그 정열은 어디서 왔을까? 직장 교회 일로 바쁜 중에도 교우들을 일일이 보살피고 다른 주로 이사간 사람까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박장로는 분명 사랑의 화신이였다.

오늘 장례를 치르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분이 그림자다. 이

분이 떠난 빈 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까? 나처럼 이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복된 만남을 주신 절대자를 밤이 새도록 찬양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이 분을 따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며 다른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고 싶다. “나에게 복이 되셨던 박석만 장로님, 그리고 천사 같았던 장로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주 안에서 편히 쉬소서.”



## 장례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이신 (고) 박석만 장로께서  
지난 4월 26일 소천하셔서  
4월 30일 장례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이웃으로, 친우로, 형제자매로  
함께 사랑을 나누어 주신 분들과  
고별 예배와 장례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유가족 부인: 최정선권사  
자: 우진, 성진  
손자: Adam

## 장례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월 29일과 30일 저희 교회 (고) 박석만 장로  
고별 예배와 장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인사 드립니다.  
박 장로께서는 37년 전 저희 교회 창립교인으로 참여하셔서  
1990년에 장로로 취임하고, 2000년에 원로장로로 추대되어  
소천시까지 헌신과 봉사로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셨습니다.  
저희교회에서는 처음인 교회장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고인의 떠나심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하여 주신 지역사회 교민 여러분,  
교역자, 그리고 이웃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용환의 교우일동



영업시간: 5pm - 2am 7days

# LIMELIGHT STAGE + STUDIOS 노래방

## 맥주·와인·사케제공

과일, 생수, 칩과 견과류를 무료제공

## 최신형 오디오시스템과 최신모델의 태진 노래방기기 완비

깨끗하고 산뜻한 룸 인테리어  
크고, 작은 파티에 적합한 장소

보스톤 그린라인 Boylston 역과 오렌지라인 Chinatown역  
204 TREMONT STREET BOSTON MA 02116  
www.limelightboston.com  
예약문의: 617-423-0785

#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우리의 가슴 속에는 고요하고 맑으며 밝은 문이 있는가 하면,  
번거롭고 혼탁하며 어두운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야 하는지는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참선이나  
명상을 통해 맑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맑은 에너지가 생기며  
그 맑은 에너지는 맑고 밝은 쪽으로 방향을 밝혀 줍니다.”

- 도범 스님, “구도자의 발자취” 중에서



##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봉축법회: 불기 2558년 (2014년)5월 4일 일요일

제1부 오전 11시: 봉축 법회

제2부: 관불의식

제3부 오후 3시: 특별 수계 의식

제4부 저녁 7시: 저녁 예불 및 탑돌이

장소: 문수사 큰법당,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문의: (781) 224-0670, (781) 439-8383

\* 연등접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지 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781) 439-8383 입니다.

\*찾아오시는 길: I-95 North Exit 42로 나오신 후, 바로 Salem St으로 우회전,  
약 150 미터 전방에서 Gst station의 왼쪽길로 직진후 약 200미터를 더 오시면  
갈라지는 길에서 오른쪽에 문수사 표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I-95 South Exit 42로  
나오실때는 Exit 직후 좌회전하신뒤 Salem St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 '된 사람'의 캐릭터 형성이 리더십에 중요한 이유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며...

세월호의 참사로 한국인은 비통함과 수치감에 젖어있다. 타국에 있다고 예외는 아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치고, 사망한 큰 재난이다. 우리의 희망인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 앞에서, 참사의 아픔을 토로할 수가 없다. 한국 어른으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워지기 때문이다. 보스톤에 있는 미국 방송국의 보도를 통해, 자기 생명 지키려, 속옷 바람에 세월호를 빠져나가는 69세의 선장의 모습을 보았다. '화'가 느껴지기도 전에 '굴욕감이' 이 앞섰다.

이 재난을 수습하는 한국 리더 어른들의 모습에는 '자기' 만을 위한 '이기심' 이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한 어른은 자기 목숨 살리려, 책임을 회피했고, 다른 어른은 삶을 포기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했다.

우선, 이준석 선장의 무능한 리더십을 말한다.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16일 오전 8시 49분, 선내의 리더들은 말로만 하는, '하나의 공동체' 를 형성했다."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라" 고 선내 방송을 하며, 자신들의 권위와 직권을 행사했다. 카카오 메시지에 따르면, 아이들은 '88분' 간 세월호에서 구조 요청을 보냈고, 죽음 전까지 주고 받던 장난스러운 문자글귀들이 있다. 아이들의 '천진한 마음씨' 가 하나의 공동체 를 말로만 주장했던 리더 어른들의 '역한 마음씨' 로 죽음 당한 것이다.

안산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의 자살은 어떠한가? 그는 살아남은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뒀다. 윤리교사 출신으로 유달리 책임감이 강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들었어도, 책

임을 죽음으로 대신한, 교감선생님의 자살은 이기적인 책임회피다. 그래서인가, 그분의 슬픈 죽음을 애도해야 하건만, '배반감' 이 느껴진다.

아무리 수치스럽고, 괴로워도, 어린 학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어야 했다. 자살이 주는 충동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는 중독성이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더욱 더 쉽게 충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무심한 방송사는 시청률 때문인지, 이 드라마 같은 뉴스를 계속 보도했다. '자살 충동' 을 부추기는 줄도 모르고, 교감 선생님의 자살을 '살신성인' 을 한낱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의 전 국민은 이 사건을 통해, '집단 트라우마' 를 겪고 있다. 여러방송국들은 경쟁하듯, 아이들이 수장되는 과정을 생중계로 수없이 보여주었다. 한국 국민들은 그것을 보며, 마치 내 아이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몇 차례 겪었다. 사회 전체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것이다. 911 사건을 기억해 보면 안다. 미국 사회 전체가 우울증과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다. 아직도, 그 잔재는 미국의 사회에 깊숙히 남아있다. 다시 테러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에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 공공 행사, 공항의 삼엄한 안전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911전의 미국의 자유는 절대 회생될 수가 없다. 그만큼, 집단 트라우마가 주는 상처의 골은 매우 깊다.

세상에는 3부류의 사람이 있다.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이 그들이다. '난 사람' 은 재능이 있거나 이름이 난 사람(재물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든 사람' 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말한다. '된 사람' 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실은 '난 사람', '든 사람' 이 '된 사람' 보다 훨씬 많다. 한국은 특히, 더하다.

최인호는 우리 교육이 참 엉망으로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난 사람' 만들기에 목매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100명 중, 과연 몇 사람이 '난 사람' 이 되는 걸까? 100명 중 한 사람? 그것은 100명 중 단 한 사람이 '난 사람' 이 되고, 나머지 99명은 리더가 되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사람들의 캐릭터(character)형성이 세살 전에 이루어 진다고 말한다. 한 예로, 뉴질랜드에 있는 오타가(Otago) 대학 아동 심리학자들의 실험을 소개한다. 그들은 1972년부터 1979년까지 Dunedin's Queen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1000명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3살부터, 15살, 18살, 21살까지의 캐릭터 형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3살 아기의 성향은 21 살의 어른이된 캐릭터와 유사함을 발견했다(The Sunday Mail, 05/16/1999). 이 실험의 결과는 '세살 버릇이 여든 까지 간다' 라는 한국의 속담을 아주 잘 뒷받침해준다.

한국의 교육열은 유아기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아기는 세상이 자유와 꿈과 재미난 놀이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한국의 환경은, 이렇게 신나게 놀아야 할 나이에, 영어 단어 카드를 아이 손에 쥐어준다. 다른 또래와 어울리기 시작하며, 100명 중 단 한명의 '난 사람' 이 되기 위한 경쟁은 시작된다. 결과와 등수만 중시하는 '경쟁 위주 교육제도'의 시작인 것이다. 아이들은 서로 협력하기를 배우기 보다는 1등할 것을 요구받는다. 인간의 가치도 공부의 순위로 결정된다. 공부를 잘 하면,

착한 아이, 좋은 아이가 된다. 사랑을 받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1등만 우대 받는 이 캐릭터는 어른이 되어 행하게 되는 리더십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난 특별하다는 '난 사람', '든 사람' 으로의 엘리트 의식의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리더십은 미국 환경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여러 분야에서 특출나게 뛰어나다. 여러 학교에서 '난 학생', '든 학생' 이 된, 한국 학생이 곳곳에 있다. 특이한 현상은 고등학교부터, 생각보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우울증과 불안증을 호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회성도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 특출한 한국 학생 수에 비해, 극소수의 한국 학생이 리더십을 발휘한다. 안타깝게도, 이 리더십마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일 때가 많다. '난 사람' 과 '든 사람' 의 리더십의 양상인 것이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선, '된 사람' 이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난 사람' 과 '든 사람' 이 되도 늦지 않다. 한국인은 매우 똑똑하다. 재주도 많다. 아이들에게 한국의 뿌리 사상이인 '홍익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는 인간 정신을 가리켜, 된사람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된사람' 이 바탕이 되어, '난 사람' '든 사람' 이 된 리더는 결코, 이기적인 리더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명의 한국 아이들이 '된사람' 이 되면, 한 사람을 위한 불행한 들러리가 되지 않아도 된다. 즉, 100명 모두가 행복한 삶의 리더가 되는 것이다. '행복하고 된 사람' 의 '한국인' 2세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유능한 한국 리더어른이 생겨나는 것이다.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진료를 편리하게 한곳에서!

- \*치아교정
- \*소아치과
- \*사랑니발치
- \*치아미백
- \*임플란트수술
- \*악관절(TMJ)
- \*보철/비니어
- \*수면진정마취
- \*신경치료
- \*3DX-Ray(CT 스캔)

**Special!**

**치아교정 무통 상담**

(2013-10-31까지)

**Dr. Jeong Sook Lee** (김정숙 선생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DS/Ph.D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Practice limited to prosthodontics



**Dr. Michael Kong** (강철문 선생님)  
University of Pennsylvania,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Dr. Samuel Lee** (이세은 선생님)  
UCLA School of Dentistry,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perio, implant, & ortho





**IMPLANT • BRACES • COSMETIC**  
**DENTAL**  
1st.CHOICE DENTAL

한국인 직원을 찾아주세요

**781.273.2233**

www.1cdental.com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H**

마트에서  
5분 거리



DENTAL IMPLANT CENTER  
FIRST CHOICE DENTAL GROUP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혹들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대형 여객선 '세월(SEWOL)호' 침몰 사건이 예견된 인재로 좁혀지고 있으나 풀리지 않는 의혹도 적잖다. 가장 큰 관심사는 왜 갑자기 무리한 항로 변경, 즉 과잉 회전으로 급선회했느냐는 점이다. 또 해경의 대피 지시를 무시하고 왜 "객실에 있으라"고 방송했는지, 침몰 직전 들린 '쿵' 소리의 정체, 조난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속옷 차림의 이준석(69) 선장이 구조될 당시 조타실에 필리핀 여가수 등이 있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서 사고 직전 이 선장의 행적에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연착 통보, 배의 이상징후 미리 알았나?

세월호의 침몰원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침몰 20여 분전 1시간30분 연착 사실을 승객과 선사, 하역업체에 알린 정황이 포착됐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세월호가 맹골수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오전 8시48분 보다 20여 분 전인 8시30분께 세월호 측은 안내방송을 통해 예정시간보다 1시간30분 지연될 났 12시께 도착할 예정이라고 선내에 알렸다.

사고해역인 맹골수도에서 제주항까지는 50여 마일 거리로 세월호가 19~20노트로 순항했을 경우 제주까지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사고 발생시점인 오전 8시48분 훨씬 이전에 맹골수도에 진입한 세월호가 정상적으로 운항했을 경우 제주에 도착할 예정 시간이지만 1시간30분이나 지연될 것이라는 안내방송을 왜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이미 배의 이상징후를 선장이나 선원들이 감지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 급선회 필요없는 지점에서 P턴은 왜?

세월호가 사고지점에서 보였던 이상 항적, P자형 운행도 미스터리다.

인근 해역 어선 선장들의 말에 따르면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급선회가 필요없는 지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의 항적도를 본 전문가들은 항로를 바꿔야 하는 변침점이 맞더라도 방향을 5도에서 10도만 틀면 되는데 30도 이상 틀 것에 의구심을 갖는다. 조타수 조모 씨도 평소보다 타가 유난히 빨리 돌아 더 많이 선회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했다.

갑자기 나타난 어선이나 어망, 암초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거나

조타기나 엔진 고장, 줄음운전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명확한 원인은 아직까진 미궁이다.

급선회를 한 배경이 당시 배를 몰았던 선장과 항해사의 진술에 달려 있는 가운데 P턴에 대한 궁금증 역시 증폭되고 있다.

**침몰 직전 '쿵' 소리는?**  
세월호의 침몰과 관련해 구조된 승객들로부터 "쿵" 소리와 함께 배가 갑자기 기울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사건 초기만 해도 세월호가 암초에 충돌해 좌초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사고 당시 기상상황이 양호했고 사고지점이 암초가 있는 지역도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박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외적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와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선박에는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다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대형 탱크가 있음에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급격히 기울고 침몰했다는 증언에 비춰볼 때 연료 효율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물탱크를 비웠거나 비우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쿵' 소리는 화물이 부딪히는 소리이거나 엔진룸의 문제, 또는 내부 폭발을 의심하게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사고발생 후 1시간 동안 왜 신고 안했나?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발생 시각과 신고 시각 사이에 1시간 가량의 격차가 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목포해경 상황실에 접수된 최초 사고 신고 시각은 오전 8시 58분. 이 최초 신고는 사고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승무원이 직접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단원고 한 학생의 "침몰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시각이 오전 8시 58분 이라면 사고 발생 시각은 이보다 더 이전으로 추정되지만 해경 측은 직접 받은 조난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왜 승무원들이 직접 해경에 조난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세월호가 최초 신고 시각 훨씬 이전인 7시에서 7시 30분쯤부터 사고해역에 가만히 서 있었다는 지역 어민의 목격담이 나오면서 의문은 커지고 있다.

이 어민의 말대로라면 사고선박은 현장에서 1시간여 동안 머물러 있었고 이 어민이 현장을 떠난 뒤인 오전 8시 30분께를 전후해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 대피 지시 묵살하고, 조난구조수 사용 안한 까닭은?

선장이 탈출하는 순간에도 선내 방송에서는 승객들에게 선실에 있으라고 방송했는지 여부는 아직도 미스터리다. 승객들이 선실에 있는 동안 1층에 있던 선원들에게는 탈출을 지시했다는 진술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앞서 이 선장은 사고 접수 직후 해경으로부터 "승객들을 긴급 대피시키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묵살, 그 배경의 의문이다.

'비상체널 16번'. 전 세계 모든 선박



세월호 선장의 속옷 탈출 장면이 지난달 28일 해경이 공개한 구조 영상에 포착됐다

이 긴박한 상황을 주변 관제소나 선박에게 알려주는 국제 조난구조수다. 그러나 세월호는 주변 선박들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널 16을 마다하고 12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급박한 상황에서 인근 해경이 아닌 관제센터에 우선 연락한 점과 통화의 질이 좋은 일반전화 대신 무전기를 사용한 점도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 속옷바람 탈출한 선장, 조타실 있던 필리핀 여가수 행적 의문?

지난달 28일 해경이 공개한 구조 영상 속 이 선장의 속옷 차림 구조 모습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사고 순간 당시 이 선장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구조 당시 이 선장은 아래에 속옷 말고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경경 합동수사본부와의 조사 당시 이 선장은 "사고 순간에 담배를 피우러 조타실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 선장은 탈출 당시 속옷 차림이었던 사실이 알려지자 "선실에서 바지를 갈아입으려는데 배가 기울어 급히 달려왔다"고 황급히 말을 바꿨다.

특히 조타실에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줄줄이 빠져나와 해경에 구조될 때, 조타실에 중년의 한국 여성과 필리핀 여가수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선장의 사고 당시 행적이 더욱 의문을 낳고 있다.

이들은 '통제구역'이었던 조타실 안에 있다가 이 선장이 구조된 직후인 오전 9시48~49분께 구출돼 해경 경비정에 올랐다.

hs0h@bostonkorea.com

# 무능한 정부 대응에 성난 민심 합동분향소 조문객 60만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의 무능한 사고 대응에 분노하는 민심은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잇따른 사과에도 좀처럼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 형식의 2차 사과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14일째인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은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를 다녀오고 국무회의에서 공식 사과까지 했지만 유족들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유가족대책위는 "5000만 국민이 있는데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뿐인가"라며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실종자 수색이 완료되는 이달 중순쯤 박 대통령이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직접 나서 대국민담화를 한다고 밝혔다. 이때는 국민 앞에 서서 사과와 함께 공식 개혁과 재난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처음으로 지난 1일 전남 진도 체육관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정 총리는 현재 하고 있는 수색·구조 방안에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논의했다고 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실질적 구조 대책 마련과는 동떨어진 행보에 실종자 가족들 대부분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도 지난달 30일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종자 수색에서 초기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체와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여러 지적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데 추후 이에 대한 수사가 있을 것이며 해경 전 직원은 수사 결과를 엄숙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

기 위해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5월 1일 현재 23만명을 넘어섰다.

전국에 마련된 시·도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은 총 34만9239명으로 안산 합동분향소 조문객을 합친 전국 조문객 수는 57만9051명으로 집계됐다.

합동분향소에는 현재 희생자 177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다. 학생 115명, 교원 4명, 일반인 18명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업을 중단했던 안산 단원고는 지난달 28일 사고 발생 13일 만에 전학년 수업을 재개했다.

단원고는 이날 1학년 전학생과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2학년 13명의 수업을 다시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3학년 505명 중 480명이 출석한 가운데 수업을 재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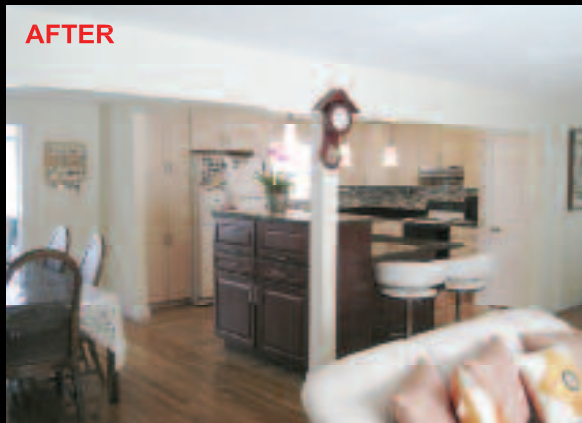
사고 현장에서 구조돼 고려대 안산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2학년 학생 74명 가운데 70명은 퇴원 후 대부분도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심리치료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hs0h@bostonkorea.com

© 2014 OTK DeCon Group. All rights reserved.



Cambridge, MA



AFTER



BEFORE

Lexington,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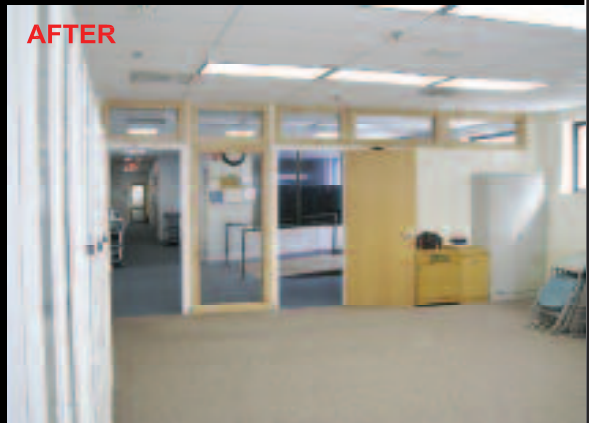


AFTER



BEFORE

Topsfield, MA



AFTER



BEFORE

Woburn, MA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무료 상담 및 견적

하우스 리모델링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Design • Construction • Management

건축 & 시공

otk212@gmail.com 617.620.8242





전 미주 최초! 방송 3사 모두 시청 가능한 유일한 TV - **엔티비**



엔티비 학생할인

# 폭탄세일!

# \$14.99

(2년 약정시, Tax 면제)

## 학생 할인

2014년 5월1일-31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엔티비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7.99

###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홀드백 Free 상품/1인1대/무약정 가능)

###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홀드백 Free 상품/1인1대/1년약정)



### 3. 추가로 설치하세요!

2nd, 3rd 엔티비 추가 장비 할인

추가시 대당 \$9.99(홀드백 Free 상품/총 3대까지 가능)



KBS, MBC, SBS, CJ & M

[www.enjoyandtv.com](http://www.enjoyandtv.com)

KBS1, KBS 2, MBC, SBS 인기 프로그램과 영화, 키즈, 교육, 신앙생활, 골프 등 수만여편의 컨텐츠, 이제 엔티비와 함께 다양한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무한대로 즐기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우리 문화 잠재력을 파괴하는 미국 행위입니다.



에이치플러스

# 양지병원

## 고국방문 건강검진

〈세상과 현재에 희망을 주고 인간존중의 따뜻한 마음으로 치유한다(Hope • Humanity • Healing)〉는 병원이념을 그대로 옮겨 담은 힐링인터리어로 새롭게 변화된 양지병원에서 뉴스코리아와 함께 고국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병원 완공과 함께 선진종합병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된 양지병원은 350명상 확충과 함께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와 우수전문의 대폭 부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 양지병원

151-852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10-715



###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10만원 / 여: 220만원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추가항목	여성 추가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1. 뇌 MRA	1. 뇌 MRA
2. 청력 검사 (순음청력 검사)	2. 뇌 MRI	2. 뇌 MRI
3. 혈액 검사 (종합혈액 검사)	3. 관상동맥 CT	3. 관상동맥 CT
4. 암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4. 흉부 (폐) CT	4. 흉부 (폐) CT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5. 심장 초음파	5. 심장 초음파
6. 요 검사 10종	6. 갑상선 초음파	6. 갑상선 초음파
7. 체지방 검사	7. 경동맥 초음파	7. 경동맥 초음파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독수촬영)	8. 전립선 초음파	8. 부인과(자궁) 초음파
9. 소화기 검사 (위, 대장 수면 내시경)	9. 골밀도 검사	9. 유방 초음파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 질환)		10. 골밀도 검사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입원 종합검진

남: 60만원 / 여: 70만원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추가항목	여성 추가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1. 흉부 (폐) CT	1. 갑상선 초음파
2. 청력 검사 (순음청력 검사)	2. 전립선 초음파	2. 부인과(자궁) 초음파
3. 혈액 검사 (종합혈액 검사)	3. 골밀도 검사	3. 유방 초음파
4. 암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4. 골밀도 검사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6. 요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독수촬영)		
9. 소화기 검사 (위, 대장 수면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당일 종합검진

남: 45만원 / 여: 55만원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추가항목	여성 추가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1. 흉부 (폐) CT	1. 갑상선 초음파
2. 청력 검사 (순음청력 검사)	2. 전립선 초음파	2. 부인과(자궁) 초음파
3. 혈액 검사 (종합혈액 검사)	3. 골밀도 검사	3. 유방 초음파
4. 암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4. 골밀도 검사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6. 요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독수촬영)		
9. 소화기 검사 (위, 대장 수면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검사시간

- 당일 종합검진: 8:30am ~ 12:30pm
- 입원 종합검진: 2:30pm ~ 12:30pm(1박 2일)-1인실 (오전 내시경 진행)
- VIP 종합검진: 10:00am ~ 12:30pm (1박 2일)-1인실 (오전 내시경 진행)

### ★ 특별혜택

- VIP 검진자: 공항 Pick up Service 진행
- VIP 및 입원 검진자: 입원 물품 세트 지원

상담 및 문의 : 617-583-2339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sup>TM</sup>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 한국 언론자유 순위 68위...작년보다 4계단 하락

## 프리덤하우스 발표...북한은 197위로 꼴찌 2011년 이래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펜 국제 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를 작년보다 4계단 낮은 68위로 산정했다. 프리덤하우스는 1일 발표한 '2014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

유 지수를 32점으로 매기며 이탈리아, 칠레 등 공동 64위에 오른 4개국보다 낮게 평가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돼 2011년 상실했던 '언론자유국' 지위를 되찾는 데

실패했다. 총 23개 항목을 평가해 0~100점 사이로 산정되는 언론자유지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가 보장됨을 뜻한다. 지난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31점이었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이 나란히 10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꼽혔다. 벨기에와 핀란드가 각각 11점으로 뒤를 이었고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가 12점으로 공동 6위였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1점(30위)과 25점(42위)으로 '자유국'에 포함됐지만 인도(39점·78위)와 브라질(45점·90위)은 '부분적 자유국'에 머물렀다. 또 중국(84점·183위)과 이란(90점·190위)은 '부자유국'의 불명예를 안았다. 북한은 97점으로 조사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은 197위였다.

프리덤하우스가 언론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8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은 매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돼왔다. 프리덤하우스는 전세계의 언론 자유가 최근 약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권위주의 정부나 정치 환경이 극단화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뉴스의 내용을 통제하려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 오바마 '최측근' 낙점...한반도정책 힘 실리나

##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내정자 "중량감 떨어지지만 신임 두터워"... 일주일만에 '초고속' 아그레망...상원 인준 늦어질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중량감은 떨어지지만, 거리는 가깝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에 대해 워싱턴 고위 외교소식통이 1일 내린 총평이다. 최연소 대사에다 짧은 행정부 근무경력으로 무게감은 다소 떨어지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 한반도 현안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국내 외교가에서는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과 60년 넘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해 중량감이 있는 인물을 선호해왔다.

통상 정무형 인물이 낙점되는 주일·주중 미국대사와 달리 주로 직업 외교관을 기용되는 '실무형' 인선이 관례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국대사 인선 때마다 격(格)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작년말과 올해초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대사와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주중 대사가 부임하면서 이번 주한 대사 인선에 쏠리는 기대감이 컸다. 케네디 대사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장녀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고, 보커스 대사는 경제적이익확대를 기치로 내건 상원의 외교 거물이다.

이에 따라 올해초 리퍼트 내정자의 낙점 가능성이 회자되자 만 41세라는 나이와 경력을 거론하며 중량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현안에 대처해야 하는 주한 미국대사 자리의 성격상 무게감 못지않게 백악관과의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적지 않았다.

한 외교소식통은 "나이를 중요시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된 마크 리퍼트 미 국방장관 비서실장

하는 국민정서상 다소 중량감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리퍼트 내정자는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실세'라고 볼 수 있다"며 "오호러 양국관계 증진과 정책수행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원 보좌관 시절부터 오바마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해온 점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케네디 대사의 경우 미·일 동맹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동맹과 동북아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고 보커스 대사는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라는 정책적 소신을 추구하고 있다"며 "리퍼트 내정자는 '정무'와 '실무'를 두루 아우르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리퍼트 내정자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능력과 감각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에 걸맞은 능력을 갖췄다는 게 아태지역 외국대사들의 대체적인 평

가"라며 "오바마 행정부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대단히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주재국인 한국 정부도 이런 맥락에서 리퍼트 내정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주한 미국대사의 아그레망 수여는 2~3주일이 걸렸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일정에 맞춰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이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동북아 전략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대(對) 중국 견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강화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워싱턴DC의 한 세미나에 참석한 리퍼트 내정자는 "지난 17일과 18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 안보회의(DTT)가 매우 생산적이고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하고 3국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으로 3국간 안보협력에 잇박자가 빚어졌고 이것이 중국의 패권확장을 '제어'하고 미국의 역내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돼왔다는 오바마 행정부 내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동맹 및 양자현안을 조율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리퍼트 내정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북한 핵문제 해결을 놓고는 특별한 변화를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인내' 기조로 통치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입안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앞으로의 상원 인준 절차다. 현 성 김 대사는 2011년 6월에 지명됐으나 공화당 상원 내 대북 강경파인 존 카일 의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불만을 제기하며 인준을 거부하는 바람에 넉 달 뒤인 같은 해 10월 상원 인준이 통과됐다.

당장 물리적으로 인준심의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상원에 인준절차가 계류돼있는 대사 내정자는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계류된 인준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인준이 늦어질 경우 대사 대리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바마 행정부와 현재 의회를 주도하는 공화당의 불편한 관계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성될 선거정국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rhd@yna.co.kr

## 한국차 미국내 4월 판매 큰 폭 증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훈 특파원 = 지난 4월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었다.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인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6만6천107대를 팔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6만6천107대는 현대차 미국법인 4월 판매 최고 기록이다.

지난 2월과 3월 잇따라 판매가 전년 대비 하락했던 현대차는 주력 차종 쏘나타와 엑센트, 싼타페 등이 판매가 부쩍는 덕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동안 한달 판매 대수가 2만대를 넘지 못했던 쏘나타는 지난 4월 2만495대가 팔려 작년 4월보다 27.5% 늘었다.

8천997대가 팔린 싼타페는 전년 동기 대비 29.6% 성장했고 엑센트는 6천419대가 판매돼 36%나 증가했다.

기아자동차도 4월 한달 동안 5만3천676대를 팔아 12.9%라는 높은 성장률을 뽐냈다.

기아차의 전략 모델 쏘울은 1만4천403대가 팔려나가 1만4천589대가 판매된 옵티마(한국 판매명 K5)에 육박하는 성적을 냈다.

쏘울 판매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3%나 증가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대부분 4월 판매 성적이 좋았다.

제너럴모터스(GM)는 최악의 리콜 사태에도 25만4천76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난 성적표를 받아 쥐었다.

토요타는 13.3% 증가한 19만9천660대를 팔았고 17만8천652대의 판매고를 올린 크라이슬러는 14% 성장했다. 포드는 21만1천126대를 팔아 2위에 올랐지만 작년 4월보다 1% 감소했다.

9만4천764대가 팔린 닛산도 18.5% 성장했다고 밝혔다. 4월에 미국에서 팔린 신차는 약 140만대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자동차 판매가 1천650만대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 서비스, 비즈니스 용자 알선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E2 비자 사업체,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 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원하시는 사업체를 찾아드립니다.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http://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 연매상 \$600,000+, Full 리커 면허증	보스톤 남쪽: 중식+스시 연매상 \$ 1M+ Full Liquor 면허증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전국 체인 델리, 고급 몰 안에 위치 연매상 \$520,000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보스톤 변화가 좋은 장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부가수익, 비어+와인, 로타리 저렴한 매매가격 \$129,000
보스톤 북쪽 큰 몰안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떡아님)	론드로맷: 보스톤 연매상 \$180,000 새 장비들 (2010년)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145,000 고급동네
아침, 점심(6일) 매상 \$180,000 주변에 아파트 신축 중	보스톤 론드로맷 연매상 \$70,000 소유자 부재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세탁소 Full Plant +셔츠유닛, \$300,000 +Owner finance 가능
로드아일랜드 큰 몰 안 모자+악세사리, 연매상 \$500,000+	론드로맷 +부동산, 연매상 \$230,000 소유자 부자중 경영, 카드시스템, 물값 절약가능-우물보유
보스톤 남쪽 피자 연매상 \$300,000 한국식당으로 전환 가능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200,000+ Full Plant로 할 수 있음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45,000 19년 경영, 매매가격 \$139,000



# 보스톤 교육원

- |  |   |   |
|--|---|---|
| <b>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li> <li>• 최고 에세이 편집자</li> <li>•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li> </ul> | <b>섬머/윈터 프로그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li> <li>•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li> <li>•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li> </ul> | <b>가디언 업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li> <li>•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li> <li>•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li> </ul> |
|--|---|---|

<b>아카데믹 프로그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AT 1, 2 / AP 수업</li> <li>•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li> <li>• 단기 고득점 완성</li> <li>• 실전 문제 중심 수업</li> <li>• 상시 참여 및 주말 수업 가능</li> <li>•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li> </ul> <p>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li> <li>•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li> <li>•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li> </ul>	<b>2014 주말프로그램</b> <p><b>SAT I Class</b></p> <p>9:00-10:00 vocabulary 10:00-1:00 수업(critical reading, writing) 1:00-2:00 점심 2:00-5:00 실전문제 풀이</p> <p><b>Writing Clas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직 영어교사 강의</li> <li>•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li> <li>• 4-5학년: 10:00-12:00(토)</li> <li>• 6-8학년: 12:00-2:00(토)</li> </ul> <p>AP 및 SAT II subject, National Spanish Exam 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지도 가능</p>	<b>여름방학 SAT I 프로그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력있는 강사진 (영문학박사, 공학박사, Ivy졸업생)</li> <li>• 내실있는 프로그램 (매일 단어+실전문제+test, 엄격한 학사관리)</li> <li>• 합리적인 수강료</li> <li>• 다양한 session (6.23-7.11, 7.14-8.01, 8.04-8.22, 9:00-5:30)</li> </ul>
---	---	--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http://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mailto: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mailto:academicservices@bostonedu.org)